

어린이 성경통독에 관한 목회적 연구

광명서현교회 사례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오인천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8년 5월

Copyright © 2018 Incheon Oh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f Reading the Bible Through for Children
A Case of GwangMyung Seohyun Church, Gwang-Ju, Korea

Incheon Oh

GwangMyung Seohyun Church, Gwang-Ju, Korea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children is changing in a negative direction to their faith growth. I am convinced that this study is necessary for the children in crisis is the Bible. So how do you teach the Bible to children? Child Bible education carried out in church education did not teach the whole Bible. Like adult Bible education, it was partial and biased. Finally, the children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nd experience God's heart through the Bible.

In order to overcome the partiality and bias of children 's Bible education, this study applies Byoungho Zoh's Tong-Bible to children 's Bible reading. All the story of the Bible can be read in terms of person, family, nations, and even the kingdom of God, so that children can draw a big picture to discover God's will.

The researcher chose <The One Year Tongdok Bible> as a textbook for reading the Bible for the children of Gwangmyung Seohyun Church.

Based on this textbook, we divided the 66 volumes of the Bible into 365 days a year and carried out the reading of the Bible in early morning worship. Adults and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Gwangmyung Seohyun Church project recognized the value of the Bible and realized the necessity of reading the Bible. And the whole church became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value of the Bible, return to the Bible, and begin individual reform with the Bible.

Gwangmyung Seohyun Church 1 Year 1 Bible Readings Project who participated in the implementation church members were able to understand the whole

Bible as a story and to preach it to others by bible story. In reading the Bible in the order of history, he became a holy citizen of the kingdom and had practical faith to overcome the temptations of sin. Young children also took their faith from their parents and pledged to build a faithful family by looking back at the world through the Bible.

국문초록

어린이 성경통독에 관한 목회적 연구

광명서현교회 사례 연구

오인천

광명서현교회, 한국

어린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은 결코 그들의 신앙성장에 부정적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위기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 교회교육의 현장에서 실행된 어린이 성경교육은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되지 못하였다. 성인 성경교육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이며 편향적이었다. 결국 어린이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 성경교육의 부분성과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병호의 통성경 읽기를 어린이 성경읽기에 적용하고자 한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개인, 가정, 민족,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읽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연구자는 광명서현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통독의 교재로 <1년 1독 성경통독>을 선택했다. 이 교재를 기본으로 성경 66권을 1년 365일로

나누어 새벽예배에서 통성경읽기를 실행했다. 광명서현교회 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한 성인들과 어린이들은 성경의 가치를 인식하고 성경읽기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성경의 가치를 인식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며, 개개인의 개혁을 성경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명서현교회 1년 1독 성경통독 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한 성도들은 성경전체를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로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실천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 어린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 성경을 통해 다시 세상을 보면서 믿음의 명가문을 세우기 위해 다짐을 했다.

목 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ix
I. 서론	1
문제제기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어린이와 성경교육	3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	4
학교교육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	6
교회와 가정에서의 어린이	9
III. 통성경을 통한 어린이 성경통독	15
통성경이란?	15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16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17
제사장 나라. 5대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18
통성경 스토리텔링(storytelling)	20
5세에서 20세까지 통으로 성경읽기	22
신앙계승 위한 통으로 성경읽기	26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성경적 근거	30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신학적 근거	36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목회적 근거	39
IV. 통성경과 광명서현교회 어린이들의 사례	46

광명서현교회 어린이들의 통성경적 영적성장	46
새벽 프로젝트의 순서	48
전 성도 역사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대행진	52
수요일 통성경 길라잡이 설교	56
광명서현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통성경교육	59
V. 결론	61
요약 및 결론	61
부록	64
참고 문헌	84

표 목차

<표1> 어려서부터 큰 그림을 그린 사람들.....	35
<표 2> 유대인들의 인생 나이 구분	44
<표 3> 어떻게 ‘통성경 Family 학교’ 를 할 수 있을까?	45
<표 4> 광명서현교회 아동주일학교 성경읽기표	49
<표5> 통성경 길라잡이 설교요약 주보	54
<표6> 역사순 1년1독 성경읽기표	54

감사의 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해냈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기도처럼 좋은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드루대학 목회학 박사 과정으로 인도해 주심이 선한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목회자로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34년 동안 이 길이 주의 부르심이라고 달려왔다.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였지만 목회의 패러다임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다.

좋은 스승이신 통(通)박사 조병호교수님, 다음세대에 대한 열정을 다시 세워주신 김영래교수님, 내러포로 사고의 틀을 깨고 목회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신 드루대학의 레너드 스윗 교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되니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목회학 박사 과정을 위해 시작할 때부터 제게 힘을 주시고 기도와 아낌없이 협력해주시고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신 김범진 장로님 유자숙 권사님과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하며 공부하려는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도 후원 아끼지 않으신 두 분 아버지 오명기 안수집사와 어머니 김귀남 집사의 기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회자로 헌신한다는 이유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지만 두 분은 늘 저의 고비 때마다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분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이시며 당신들의 열매입니다.

아빠의 힘이 되어준 4남매들, 필리핀에서 유학하고 있는 내 삶의 소망

인 큰아들 하린이, 내 삶의 기쁨인 혜린이, 내 삶의 에너지 우린이, 그리고
아빠가 어디를 가든지 가평 통독원까지 힘들어 하지 않고 젖병을 가지고서라
도 따라 다녔던고 현재 5세가 되어서 임상목회의 주인공이 된 막둥이 율린이,
이 자녀들이 있기에 힘이 되고, 또한 자녀들에게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모로, 4남매의 엄마로, 개척교회를 바로 시작하며
어려운 시기에 돕는 배필로 늘 함께 해준 아내 이향란 사모의 배려와 사랑이
있어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힘들어 했지만 당
신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평생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당신들을 기억하면서 평생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8. 5.

주방 작은 식탁에서

오 인 천

제 I 장

서 론

문제제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 있게 듣던 말”¹이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 찬송가 199장을 부를 때면 필자는 언제나 마음 한 켠의 아쉬움을 떨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필자는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신앙을 갖고 난 뒤 내 자녀에게는 성경을 재미있게 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다짐과 함께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왔다.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명기 6장 7절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에든지 길을 갈 때 에든지 누워 있을 때 에든지 일어날 때 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이 명령이 가정과 교회에서 성실히 지켜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긍정적 답변이 기대되지는 않는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성정보다 세속의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성경 이외의 것에서 흥미를 찾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교육의 회복은 가정과 교회의 사명 재확인과 더불어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속 문화와의

¹ 새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대결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성경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가정과 교회의 사명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필자는 목회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필자는 교회에서 성구암송, 성경퀴즈대회, 성경필사와 같은 프로그램은 교육목회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어린이 성경교육의 학문적 실천적 탐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어린이의 성경교육의 한 방편으로 본 연구는 조병호의 통성경 역사순 교육을 채택했다. 왜냐하면 성경을 파편화된 교훈의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조병호의 성경통독 방법론은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접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장에서는 어린이 성경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장에서는 어린이들의 삶의 환경이 되고 있는 미디어, 학교, 교회, 가정의 상황과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어린이 성경교육의 방법으로 선택한 통성경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4장에서는 광명서현교회에서 실시한 성경읽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의 효과를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제 II 장

어린이와 성경교육

오늘날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어린이 성경교육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어린이들에게는 교회교육보다 학교교육이 우선시되고, 학교 이외의 환경도 어린이들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더욱이 교회에서 어린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위기의 한 증거가 되고 있다. 우리의 교회는 과거 미국교회가 겪었던 어린이 세대 부재의 아픈 시련을 더 빠르게 겪고 있다. 부패한 교회가 받고 있는 사회적 질타와 교회의 교육적 능력의 상실은 교회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필립 안시는 "한국 교회가 5년 전보다 걱정이 많아진 것 같다. 과거 미국 교회가 경험한 시련을 이제 한국 교회가 겪고 있다. 이것은 미국 교회도 겪었던 시련이다."¹고 했다. 지금 교회는 결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몰락할 것인가?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좌절과 포기는 교회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향후 10년이라는 기간은 한국교회의

¹ 설동주, *글로벌 웨마학당 세미나* (과천: 웨마학당연구원, 2017), 22.

미래를 설계하는 '골든 타임'²이라고 한 김희자의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골든 타임에는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신앙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을 위한 성경교육의 어려움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

미디어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일면 TV,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기와 같은 미디어는 우리에게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유익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미디어로 인해 가정과 교회에서 소통은 단절되고 있다.

미디어는 어린이들에게 중독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미디어 사역자 신상언은 "중독에 빠져가고 있는 N세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는 모든 부모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³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원인이 그들이 미디어를 자신들의 상처와 욕망의 대체물로 보는데 있다고 한다. 미디어 중독현상은 주로 기능을 상실한 가정이나 사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상언은 기성세대와 어린이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여 마치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그가 지적한 대로

² Ibid.

³ 신상언, *직면* (서울: 낮은올타리, 2009), 198.

교육기반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의 경고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⁵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자. 미디어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언어의 차이가 발생하고 견해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어린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도구가 되고,⁶ 상업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미디어로 변해가고 있다. 여기에 말초적 흥미를 자극하는 미디어는 어린이들을 중독의 상태로 몰아간다.

왜 어린이들은 미디어에 중독될까? 본질적으로 미디어는 인격체가 아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처럼 메타포, 이미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 어린이들은 가상과 현실의 구분하지 못하는 미디어 조작에 빠져든다. 미디어의 메시지 안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사상과 영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미디어 메시지 안에 내포된 사상이나 영성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악영향을 주는 미디어는 부지불식 중에 어린이들의 사고와 영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가정과 교회는 어린이들을 미디어의 악영향 아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디어가 어린이 신앙교육에 창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 예를 들자면 미디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교의 매체로 활용되는 미디어는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기능과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흥미로운 기사가 한 신문에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

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10).

⁵ 신상언, *직면*, 198.

⁶ 설동주, *네 자녀 네가 가르쳐라* (과천: 웨마학당연구원, 2014), 74.

의하면 '밀레니엄세대'와 'Z세대'가 그들의 부모인 '베이비붐세대'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⁷ 그리고 미디어에 친숙한 어린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에 영향을 받은 어린이들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미디어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레너드 스위트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흉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심고 예수님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⁸고 했다. 스위트의 주장처럼 미디어의 세상 속에서 성경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디어의 문화 속에서도 성경교육은 어린이들의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학습한다. 수 많은 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어린이들에게 교회는 뒤쳐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학교교육과 교회교육 사이의 바른 관계의 정립은 어린이 성경교육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⁷ 국민일보, "다음세대가 문제? 오히려 적극적인 전도자 될 수 있어," 2018년 3월 8일.

⁸ Leonard, Sweet, *So Beautiful: Divine Design for Life and the Church* (Escondido, CA: christianaudio Seed, 2009), 167.

사실 일제 강점기 시절 선교사들이 일본정부에 '한국기독교 학교에 신앙교육과 성경을 가르치게 하라'고 요청을 하여 기독교교육을 시행하였다. 그 이후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 학교(Mission School)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을 마음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금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일반학교에서는 세속 학문을 가르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암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학교교육의 영향에 무방비로 영향을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을 던지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방법과 전략,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교회가 좌초되지 않으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맞을 던지고, 그 맞을 끌어당기면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⁹

학교교육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학교교육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예수에게 맞을 던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르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학교교육이 퍼붓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린이들이 좌초되지 않게 하는 든든한 맞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⁹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서울: 땅에쓰신글씨, 2010), 29.

필요에 따라 변화도록 교회가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영향 아래서 교회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본질을 보존해야 한다.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만일 이 본질적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의 기준과 기대에 무작정 부응한다면 그것은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한 때 스타벅스커피는 커피판매보다 캐릭터 상품, 연예기획 사업에 몰두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적이 있다. 그때 회사를 떠나 있었던 전 스타벅스의 회장 하워드 슐츠는 복귀 후 “커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커피점이 백화점이 될 수 없고, 커피점이 연예기획사와 경쟁할 수 없다. 커피점은 커피점일 때 가장 훌륭한 모습이다.¹⁰ 교회교육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¹¹

교회는 어린이들이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서 시작된다. 물론 어린이들이 전도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미 있게 나눌 수 있으면 충분하다. 만일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어려우면 일상의 생활에서 예수님의 삶의 실천하는 작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따돌림 받는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다. 이 때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감을 교회에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¹⁰“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핵심을 놓쳐 버린 것이 당연하다. 나는 진부한 농담이나 지속적인 하위문화에 고무되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의미 있고, 세상을 변화 시킬 만한 소명을 사람들에게 던져 준 다음, 그 것을 다시 빼앗으려 해보라! 단순한 의미와 책임을 넘어 의미와 열정을 보여 주신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스타벅스는 이 점을 간파했고, 교회도 그래야 마땅하다.”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0-31.

¹¹ Ibid., 211.

학교를 간다면 학교도 변하고 사회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행동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레너드 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님께선 우리를 지적인 동의라는 정적인 행위로 부르지 않으셨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신앙 고백에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을 따르라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라고 하신다. 열정·의미·이미지·경험, 복음을 구성하는 이 네 가지는 복음전도자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¹²

스윗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으나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으셨다. 신앙고백과 함께 움직이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셨다.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행동하며 움직이는 복음전도자들로 만들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어린이

앞서 언급했듯이 교회학교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출산율의 격감, 학교교육의 부담, 여가활동의 증가 등으로 교회학교에서 어린이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린이 신앙교육 전문가 박연훈은 2050년 이후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비율이 5-10%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¹³ 그러면 현재의 상황이 야기된 교회 내적 원인과 책임소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위기의 일차적 책임은 우선 부모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담당교역자의 책임이 37.3%, 담임목사의 책임이 36.9%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¹²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게다*, 33.

¹³ <http://blog.daum.net/kcgi5291/6>. (2017년 11월 8일 확인).

책임이 결코 경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¹⁴ 왜 교회는 어린이의 교육에 실패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출석인원 증가에 몰두하는 동안 교회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법 모색에 미진했던 것이기 때문이다.¹⁵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의 실패는 가장 치명적 문제이다. 교회교육 즉 기독교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경교육의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에 무관심 했다는 것은 교회교육이 책임져야 할 본연의 사명을 소홀히 한 셈이다. 전통적으로 교회학교에서의 성경교육은 분반공부의 형식으로 성경본문을 읽고, 해설하며, 적용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성구암송 등을 통해 지식의 재생을 교육의 결과로 간주했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과 학교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고전적 방법은 성공적 성경교육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교수방법이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김영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새로운 교회의 목회와 교육은 성경을 전체로 듣고, 읽고, 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때 단순한 암송이나, 해서, 또는 감동이 성경을 만나는 방법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전체로 그리고 부분으로 개인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보아야 한다.¹⁶

그의 주장은 성경을 전체로 경험하는 통성경의 방법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도록 하면서 성경읽기에서 흥미와 감

¹⁴ 설동주, *쉐마학당 세미나* (과천: 쉐마학당연구원, 2017), 25.

¹⁵ Ibid.

¹⁶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216.

동을 얻도록 해야 한다.¹⁷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린이 성경교육이 단지 교회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주중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이다. 신앙교육의 맥락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교회와 가정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근 신앙교육의 장소로 교회와 가정이 연합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김영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09년 출간된 '가족목회의 관점들: 세 가지 견해'(Perspectives on Family Ministry: Three Views)에서 폴 렌프로는 '가족통합목회'를 가장 바람직한 목회라고 했다. 그는 신명기 31장 12절의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라는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의 모든 집회에는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¹⁸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순간부터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수하여 예수님을 닮게 교육해야 한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현용수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곧 수직적인 전도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 가정의 '쉐마'교육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수직적 전도는 대부분 구약 성경의 '쉐마'에 있다. 수직적 전도는 가정에서

¹⁷ 장홍길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읽게 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통합적 준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장홍길, *신약성서에서의 재산* (서울: 한들, 1998), 436.

¹⁸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교회학교를 가정으로 보낸다," 국민일보 2012.12.10

부모가 혈통적 자녀에게 율법(말씀)을 전수시켜 자녀를 '말씀 받은 자'(롬3:2)¹⁹ 로 키워 자녀를 영적 제자로 삼는 선민교육이다. 선조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부모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에 근거한 다음의 주제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몸소 가정에서 실천해야 한다.

- 왜 가정은 성전인가?
- 성경적인 자녀의 개념은 무엇인가?
- 쉐마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토라(율법, 말씀)를 그토록 강조하는가?
- 왜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인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의무는 무엇인가?
- 왜 어머니는 남편을 돕는 배필인가? 무엇을 도와야 하는가?
- 왜 자녀를 말씀의 제자로 삼는데 효도 교육이 중요한가?
- 왜 고난의 역사 교육의 중요한가?
-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의 광야 길을 거치게 하셨는가?²⁰

설동주는 또한 쉐마교육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을 강조한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이웃) 것이 신약의 지상명령이라면(마28:18-20), 말씀을 전수하는(자녀) 것(신6:4~9)은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약의 지상명령을 강조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수직적 차원은 도외시했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현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기독교 이천년의 역사가 안고 있는 문제다.²¹

유대인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전하였기에 수직적 전도가 가능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성경적 원리를

¹⁹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았음이니라” (롬 3:2).

²⁰ 현용수, *부모여 자녀를 제자삼아라* (서울: 아름다운세상, 2003), 74.

²¹ 설동주, *네 자녀 네가 가르쳐라*, 105.

가정에서 실천하면서 자녀를 교육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교육 전통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보자. 다윗은 자기 인생을 마감해야 할 시점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다. 다윗은 자신이 피땀으로 일궈놓은 큰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줌과 동시에 중요한 두 가지 유언을 하였다. 먼저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국가의 현안들을 해결하라는 비책이었다.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아들로써 평생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신앙에 관한 유언이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왕상 2:2-3).

20세의 솔로몬이 민족을 이끄는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신앙 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윗의 유언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재차 확인²²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또한 바울과 디모데 역시 세상의 보물보다도 더 값진 것을 주고받은 관계였다. 바울은 인생을 마감²³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선물했다²⁴. 세상 무엇과도 비할 데 없는 선물로 디모데는 그의 목회를 정말 복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갔다. 후손에게 물려줄 세상의 보물과는

²²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할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열왕기상 9:3-4).

²³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²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4~17).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바로 이것이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와 가정의 사명인 것이다.

제 III 장

통성경을 통한 어린이 성경통독

이제까지 어린이의 교육적 맥락과 성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으로 성경통독을 한 방법으로 제안하고 한다. 성경읽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어린이들의 학습환경에서 교회가 성경을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재발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유도하는 어린이 성경통독은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으로 본다.

통성경이란?

통성경이란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성경통독 방법이다. 본래 '통독(通讀)'은 동양에서 배움과 지식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해왔던 방법이다. 전체를 반복하여 읽는 것은 텍스트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책 전체를 통으로 읽은 동안 독자는 마침내 직관(intuition)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한 장에서 지혜를 발견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해진다. 따라서 매일 한 절 또는 한 장씩 묵상하는 방법으로도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성경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통독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다. 즉

성경의 부분적 읽기는 영의 양식을 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편식으로 획득한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릴 수 없다.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통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공간, 인간을 통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에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이 들어 있다."¹고 한다. 먼저 성경 속의 시간에는 '태초'로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이르기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간인 '처음'과 '끝'이 모두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절기와 명절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이 있다.

또한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의 시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또 1,000년의 시간이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00여 곳의 공간이 들어 있다. 성경 속 공간은 일정 지명들을 포함해 '보여줄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약 1,500곳에 이른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함께 5,000여 명의 인간을 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로 크게 나뉜다.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공존한다. 바로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서 안 된다. 반드시 통통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은 성경 속의 시간이지만

¹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29.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있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과 5,000여 명의 인간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파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통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성경이다.²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던 시점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를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망을 본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다.³ 모세의 가정은 서로 마음 하나로 모았다. 그렇다면 그런 가정에서 어린 모세가 죽을 확률은 99.9%이다. 그런데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가정이 속한 히브리 민족은 비록 하나의 민족은 이루고 있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베들레헬 탄생 이야기도 개인. 가정.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헬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이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헬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은 로마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 하라고 한 나라의 이야기이다. 즉, 로마

² Ibid., 30.

³ Ibid.

제국과 유대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확인해보듯이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 개인, 가정나라 이야기를 함께 통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통성경이다.⁴

제사장 나라. 5대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1조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처럼, 제사장 나라의 법 1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0:2)이다. 이는 제사장 나라가 여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종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나라임을 뜻한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나라이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수직적으로 아래에 두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 나라의 법을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과 맺은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국을 하나님의 세계경영에 들어 사용하신

⁴ Ibid.

것이다.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성경 속 명절인 수전절은 헬라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틀이기에 신약성경과 로마 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 5대 제국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이다.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이고, 신약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계경영을 위해 사용하신 5개의 제국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들어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⁵

제사장 나라, 5대제국,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앗수르(이사야): 주께서 ...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사 10:12)

바벨론(예레미야):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렘 25:11)

페르시아(에스라): 바사(페르시아)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도 (스 1:1)

헬라(수전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요 10:22)

로마(십자가):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마 27:1~2)

하나님 나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눅 16:16)⁶

⁵ Ibid., 34.

⁶ Ibid., 34-36.

통성경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성경을 '통'으로 본다는 것은 분석적 사고와 전체적 사고를 유기체적으로 통합한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분석과 통합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성경읽기가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면서 이루어졌다면, 통성경을 적용한 스토리텔링은 성경의 전체성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통성경 스토리텔링의 실례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자. 보통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 할 때 그의 나이 30세까지만 관심을 갖는다. 그의 이야기는 어려서 꿈을 꾸었고, 채색 옷을 입었고,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하다 감옥에 가게 되고 그 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요셉의 인생 1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 받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아버지의 품에서 큰 그림을 보았던 요셉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품었던 요셉은 꿈을 꾸고 그것을 품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로부터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주 만물과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 이런 준비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길 원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보내 졌고,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인생 2막이 바로 30세까지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후 80년의 삶을 우리는 더욱 중요하다. 요셉이 39세에 선택한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한다'⁷는 말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이 말을 바로에게 건넬으로써 결코 애굽의

⁷ “....And they said unto Pharaoh, Thy servants [are] shepherds, both we, [and] also our

왕족. 귀족 가문과 요셉 가문의 혼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말이고 결국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던 그들과 경계를 두었다. 요셉은 결국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 그들만의 민족을 이루었고, 먼 장래에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은 그리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요셉은 아버지 야곱 장례식은 70일간의 애굽 국장으로 치렀다.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장지까지 올라간다. 출애굽 예행연습인 것이다. 아버지의 장례를 통하여 요셉이 꿈꾼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때가 요셉이 국가 비상사태의 총리 14년을 보내고도 12년이 더 지난 시점인 것이 놀랍다. 요셉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와 관련이 있다. 여호수아서 끝에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에 묻는⁸ 이야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면 요셉의 유골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막 보다 더 오래된 유골이다. 더 나아가 요셉의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성경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며 청자들로 하여금 흥미와 감동을 더하게 해준다. 성경의 스토리텔링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그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감지하면서 그의 뜻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읽기는 성경 전체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 마음 속에 기록할 수 있는 학습의 도구이다. 그런데 만일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성경이야기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또

fathers” (KJV., 창 47:3).

⁸ “And Moses took the bones of Joseph with him: for he had straitly sworn the children of Israel, saying, God will surely visit you; and ye shall carry up my bones away hence with you.” (출 13:19). “And the bones of Joseph, which the children of Israel brought up out of Egypt” (KJV., 수 24:32).

설교자의 편에서 몇 구절의 요절만 가지고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해 온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병호는 불량 식품인 예화주의 대신, 영양 만점의 '집 밥' <모든 성경>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⁹ 그의 주장처럼 성경의 통독, 다시 말해 집 밥 <모든 성경>을 잘 요리하며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¹⁰

5세에서 20세까지 통으로 성경읽기

왜 5세에서 20세인가?

구약성경에 나타난 지도력의 계승을 살펴보면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자격으로 신앙을 계승한다. 이와 더불어 가정 내에서 신앙을 계승한 경우들도 나타난다. 먼저 가정적 차원의 계승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에게 신앙을 전승한 예이다. 사사시대에 보아스, 이새, 다윗의 신앙계승 또한 가정적 차원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가정적인 신앙계승은 곧 민족적인 계승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로기에 에스겔과 다니엘, 에스라와 느헤미야 더 나아가 에스더가 그랬다.

신앙의 계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존해주는 근거였다. 심지어 포로기라는 수치의 시기를 지내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조병호는 그 이유에 지도자들이 '제사장나라'라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⁹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14-15.

¹⁰ Ibid.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때로는 이들의 제국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지만 민중들의 존경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과 가정의 신앙계승은 곧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데 있는 근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계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부모는 자녀에게 개인, 가정, 민족의 이야기를 전해주면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도록 했다. 비록 어린이 일지라고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는 일은 일상적 과제와 임무였다. 물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능력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연령적 시기는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지와 이해의 능력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야기로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린이의 시기에도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5세 정도면 이야기를 듣고 그 줄거리를 이해하고, 내용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다. 성경에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¹¹. 만일 그렇다면 조병호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린이의 시기에서부터 청년이 되는 5세에서 20세 사이에 성경을 통으로 읽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는 “5세 아이에게 성경 통독 가르치고, 10세 때 성경의 역사를 알고, 15세에 하나님 행하신 일 설명하며, 20세에는 구속

¹¹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신 11:19).

의미를 강의한다면 그 가정, 교회, 사회는 어떨까?”¹²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로 읽고 소화하여 세상을 살면서 주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세대를 세우기 위해 통성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성경통독 대중화 앞장선 조병호는 “성경 66권을 덩어리 째 읽어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한다.”¹³ 그런데 성경을 어른들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성경을 조병호의 말처럼 역사순으로 5세부터 20세까지 성경을 스토리로 이해하는 훈련들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경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리스도의 어린이들이 성경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쉽표 하나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성경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 성경은 생명을 준다. 성경은 우리의 심령이 상했을 때 깊은 위로를 준다. 피곤할 때는 안식과 기쁨을 주는 정원처럼 성경은 우리 자녀 곁에 항상 있어야 한다. 성경의 이야기가 어린이의 심령을 적셔주면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야 한다.

통성경 스토리텔링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익은 이야기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로 들려질 때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널리 알려졌듯이 나폴레옹이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다. 김영진은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은 많다. 하지만 그

¹² 국민일보, 백상현기자,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목회.

¹³ Ibid.

중에서도 독서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대개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다닌다."¹⁴라고 했다. 독서가 나폴레옹을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라면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 우리의 어린이들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통으로 읽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며,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 우뚝 서서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할 것이다.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보다 보면 과편화되어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펼치고 싶어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엔 개인과 가정, 나라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가정사는 물론이고 히브리 민족의 아픔이 들어 있는 것이죠.¹⁵

그의 통신학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경 66권을 서구의 신학관점에서 너무 잘게 쪼개지 않고 나무보다 숲을 보는 동양 신학의 관점에서 덩어리째 보자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등 5000여명의 등장인물을 시간, 공간, 인간사로 총체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묶은 게 5년 전까지만 해도 원역사, 만나세대, 미스바세대, 재건공동체, 친구약 중간사, 제사시대 등 20개 시대였다. 그런 통신학은 5년 만에 다시 십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 성경즐기, 기도, 전도, 역사순 통독이라는 7개 사이클로 업그레이드됐다. 과거엔 단순히 연대기순에 따른 세로축의 역사순 통독이었다면 이번엔 성막·성전의 관점에서 본 성경, 성경을 바라보는 영적 관점, 제사장 나라라는 관점에서 본 성경, 성경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 주요인물의 기도, 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유대인이 탁월할 수 밖에 없는 성경적 근거), 세계사(성경과 5대 제국)라는 살이 가로축에 붙었다.

¹⁴ 김영진,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 (서울: 웅진닷컴, 2003), 191.

¹⁵ 국민일보, 백상현기자,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목회.

한마디로 폭이 넓어진 것이다.¹⁶

조병호는 “성경 66권은 십자가라는 원스토리(one-story)인데, 천지창조부터 요한이 밧모섬에 가는 이야기까지 성경을 굵은 줄기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 속 인물처럼 기도가 깊어지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세계 경영,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¹⁷

그렇다면 성경을 5세에서 20세까지 읽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중대한 사명이다.

신앙계승 위한 통으로 성경읽기

한국교회에서 신앙계승의 차원에서 다음세대(next generation)를 염려하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 10여년 전만해도 다음세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미 결정적 시기를 놓쳤다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기회이다. 필자는 한국교회가 통성경을 통한 다음세대 세우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전술 하였듯이 주일학교가 역부족이라면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을 교회의 책임으로만 전가하지 말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And thou shalt teach them diligently unto thy children-kjv)”(신 6:5)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¹⁶ 조병호, *성경한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14-15.

¹⁷ Ibid.

한다.

여기서 조병호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내가 꿈꾸는 것은 5살짜리 아이들에게 성경통독을 가르쳐 10살짜리 꼬마가 앳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15세 소년이 제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돕는 일”¹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세 청년이 하나님의 구속과 제국의 경영을 강의할 수 있다면 그 가정과 교회, 사회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¹⁹라고 했다. 구약의 지상명령(신 6:4~9), 즉 신앙전수였던 셈이다라고 말했다.²⁰ 그의 주장에 따르면 5세부터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에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노력은 단지 한국교회의 사명만은 아니다.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회의, 비텐베르크 2017 서밋’이 개최되었다.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가 주최한 행사에서 전 세계 70개국 1000여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갖는 현대적 의미와 교회의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26명의 강사 중 에브라임 텐데로 감독(전 필리핀복음주의협의회 대표)과 함께 아시아 대표로 강단에 선 조병호는 ‘모든 성경, 모든 민족, 모든 가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성경을 역사순으로

¹⁸ 국민일보, “성경 66권을 덩어리 째 읽어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 2017.12.12, 33면.

¹⁹ Ibid.

²⁰ Ibid.

읽으며 인간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성경의 핵심 이야기를 후손에 전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병호의 결론은 신앙 전수의 중요성이었다. 그는 “5세부터 20세까지는 성경 교육의 황금기로,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는다면 1년에 10번은 읽을 수 있다”면서 “모든 민족과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모든 성경을 5세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500년 전 종교개혁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²¹

모세가 어머니를 통하여 나라를 배우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제국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판에 금광석 철필로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다음세대를 세워야 한다. 이제 교회와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개인과 가정이 해야 할 몫이다. 이것은 다음세대들이 성경을 통으로 읽고 5세에서 20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큰 그림을 그리는 세대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로 통한다. 그의 리더십은 다섯 가지 덕목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온유함’²²이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어느 누구보다도 승했다. 이러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 엎드렸다. 둘째, ‘협상’이다. 그는 애굽의 바로와 10번에 걸쳐 협상한다.

²¹ 국민일보, “통독, 성경의 핵심을 후손에 전승하는 지름길,” 2017.12.12, 33면.

²² “Now the man Moses [was] very meek, above all the men which [were] upon the face of the earth” (KJV., 민 12:3).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과도 협상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²³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고 한 협상이었다. 셋째는 '믿음'²⁴이다. 바로에게 가라는 명령도, 홍해를 건너라는 명령도 기꺼이 순종했다. 홍해를 건너면 생존을 위한 물과 양식은 없고, 오히려 불뱀과 전갈이 있을 뿐이었다. 넷째는 '교육'²⁵이다.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하 청소년들을 40년간 교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는 결국 만나세대²⁶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 다섯째는 '계승'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이 존귀했다고 평가하셨다. 바로 이 존귀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고스란히 계승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일컬어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셨다. 쓰시기 가장 편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도량이 큰 지도자, 역량이 있는 지도자, '큰 종'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부르실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대한다.²⁷ 모세의 이러한 부분만 보아도 우리는 모세의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성경을 들려줘야 한다. 성경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음세대를 위해 기성세대 또한 통으로 성경읽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

²³ "Yet now, if thou wilt forgive their sin-; and if not, blot me, I pray thee, out of thy book which thou hast written" (KJV., 출 32:32).

²⁴ "My servant Moses [is] not so, who [is] faithful in all mine house" (KJV., 민 12:7).

²⁵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 13:9).

²⁶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4~9).

²⁷ 조병호, *신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0), 46-47.

그리스도인 기성세대가 모세처럼 다음세대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세대가 되길 기대한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성경적 근거

성경에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은 인물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어린 나이에 용감하게 골리앗을 죽인 다윗,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어린 나이에서부터 제국의 변동 가운데서도 우뚝 서 있었던 다니엘과 에스겔, 또한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배워 지도자로 쓰임 받은 디모데 등 이다. 이들이 어떻게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을까? 그것은 바로 투철한 부모 교육 때문이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철저히 성경교육을 받았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고백했고, 다니엘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제국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 중 다니엘과 디모데의 경우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운 사례를 살펴보자.

다니엘

제국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우리는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어떻게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남유다의 멸망은 백성들에게 아픔이 아닐 수 없었다.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남유다의 처참한 광경은 곧 절망을 의미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제국이라는 말은 곧 제국주의²⁸이다. 제국주의와 다니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국이란 어떤 의미인가? 어느 한 나라를 무조건 제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한 민족이 많은 인구와 광활한 국토를 가진 것만으로 제국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조병호는 “제국은 민족과 민족, 수많은 민족을 전제하고 있을 때 제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²⁹라고 하면서 “어느 한 민족이 여러 다른 민족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제국이라고 말합니다.”³⁰고 했다. 다니엘은 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다니엘을 이해하려면 제국주의를 이해해야 한다.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유학을 갔던 것이 아니라 제국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각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강제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간 것이다. 제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의 중대한 프로젝트 차원에서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을 끌어갔던 것이다. (다니엘 1:4)³¹ 이로서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바벨론 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제국이란 아주 무서운 조직이다. “제국만큼 역사 속에 무서운 조직은 없습니다.”³²라고 조병호는 말했다.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와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다.

²⁸ “정치: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 민족을 징벌하여 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침략주의적 경향,” 표준국어대사전.

²⁹ 조병호, *레츠 통, 구약 천년* (서울: 통독원, 2011), 190.

³⁰ Ibid.

³¹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 1:4).

³² 조병호, *레츠 통, 구약 천년*, 190-191.

바벨론 제국은 '제국이여 영원하라!'라는 국가경영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민족을 철저하게 지배하면서 그들을 하급 민족으로 취급하고 어떤 형태의 독립도 꿈꾸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제국 유지 발전책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고 나온 것이었다. 바벨론의 유지를 위한 제국주의 정책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10대 친구들이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병풍 속에서 다니엘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³³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 제국에 온 것은 중요한 제국 정책의 일환이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눈에 다니엘은 매우 소중했다. 그는 다니엘과 같은 국가 대표급 수제들을 자신의 로봇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³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을 바벨론의 교육방법으로 교육했다. 그는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최고의 선생들이 그들을 가르치도록 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생각해 본 뒤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그의 생각의 기초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 곧 레위기 법이 있었다.

다니엘은 레위기의 법을 따르기 위해 음식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구약성경의 레위기에 기록된 법대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용기를 내 자신의 선생을 찾아가 말을 건넸다. "나는 레위기 법대로 먹겠다." 즉 바벨론의 산해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바벨론은 이들의 건강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으니 다니엘의 이야기는

³³ Ibid., 194.

³⁴ Ibid., 197.

충격적이 것이 아닐 수 없었다.³⁵

만약 최고의 수재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병이 나면 책임자에게 왕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니엘의 책임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니엘이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열흘 정도 테스트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뒤 선생님이 이를 허락해 열흘 동안 레위기 법대로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로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음식 먹기와 왕이 정한 법이 충돌을 하게 되었다. 결국 다니엘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승낙을 얻어냈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레위기 법대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다니엘이 승리한다. 총리가 된 후 총리공관에 초청된 사람들은 레위기 법대로 음식을 먹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운 다니엘은 이렇게 레위기 지식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국가 프로젝트에 저항했던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갔던 다니엘은 결국 제국의 격동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렇듯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도 오늘날의 다니엘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성경의 능력에 변함이 없는 한 수 많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즉 수 많은 다니엘 들이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Infancy)부터³⁶ 성경을 알았다고 했다. 아시아의 루스드라(오늘날 터키의 일부)에서 나고 성장한 디모데는 바울과 바나바가

³⁵ Ibid., 198.

³⁶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 the Holy Scriptures...” (NIV., 딤후 3:15).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행한 극적인 사역과 기적들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성난 군중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 버려진 것과 그 후 일어난 수 많은 폭동도 보았을 것이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니게라는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에서 자랐다.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는 바울이 그들이 마을에 방문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디모데는 성숙해 가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루스드라와 근처 이고니온에 사는 신자들을 격려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다. 이렇듯 혼혈아로 태어난 경건한 청년 디모데는(행16:3)³⁷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딤후3:15), 루스드라에서 성장했고(행16:1)³⁸, 바울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조병호는 디모데는 이미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즉 다섯 살부터 요절이 아닌 성경의 큰 그림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는 구약 39권을 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땅 끝까지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연 디모데처럼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의 큰 그림을 마음에 품었다. 그가 품은 큰 그림은 첫째,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둘째는 나라의 이야기를 품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품었다.³⁹ 결국 디모데는 성경을 배움으로 모든 민족의 기초가 되는 제사장 나와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결단과 실행의

³⁷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사도행전 16:3).

³⁸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사도행전 16:1).

³⁹ 조병호, *CBS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15.

초석으로 삼았던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디모데처럼 가정에서 성경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처럼 훌륭한 멘토를 만나야 한다.

<표1> 어려서부터 큰 그림을 그린 사람들⁴⁰

·From Infancy: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만5세부터, 어려서부터)	
1. 이삭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2. 요셉	청소년 요셉의 애굽 노예 생활
3. 모세	애굽 왕자 모세, 하브리인 모세(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4.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나실인 서원, 엘리의 교육
5. 다윗	이새의 아들, 소년 다윗의 고백-'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6. 솔로몬	약20세의 기도-'좋은 작은 아이라'
7. 예레미야	약 20세에 사명을 받음
8. 다니엘	청소년 다니엘, 바벨론 포로 때 뜻을 정함
9. 세례요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며'
10.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11. 바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12.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⁴⁰ 조병호,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북2*(서울: 통독원, 2017), 462.

어린 시절부터 통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신학적 근거

어린 시절부터 통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자.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 단지 어린이는 발달심리적 차원에서 인지발달의 낮은 단계에 있는 존재인가? 성인의 관점으로 어린이들을 평가하면 그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성인들도 어린이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린이 시절이 전적으로 인지적 열등기였던가? 아마도 성인들이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어린이의 인지능력에 대한 잘 못된 고정관념 때문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어린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 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성경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어린이의 잠재력과 성경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가르친다면 어린아이들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도 성경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며 중생한다. 성령께서 어린이들을 만지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최근 세례의 연령이 조정되어 합동교단에서 유아세례, 어린이세례를 통과시킨 것을 볼 때 어린이의 영적 능력에 대한 의심은 불필요 한 것이다.

이제 어린이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좀 더 심도 있게 시도해보자. 김영래는 어린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 된 일 아니라고 한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어린이는 단순히 작은 어른으로 간주되었다. 즉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어린이는 어른들과 구별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어린이를 위한 대중교육이 출현하고, 인지발달이론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어린이는 어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이 수용되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어린이는 어린이로 이해되었고, 어린이에게 적합한 교육과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실로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가 어린이다움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고 보장받게 되는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⁴¹

신학적 의미에서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 김영래는 첫째, 어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며, 성숙이 필요로 하는 미숙한 존재라고 했다. 둘째, 어린이는 죄인이고, 미숙한 존재이면서 순전함과 순수함을 가진 무궁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순수한 영적 존재로 결코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어린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려할 때 어린이는 순수함과 순전함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의 회복이 필요하다.⁴² 두 번째로, 어린이는 독자적 발달과 성장의 시간과 영역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는 어린이의 시기가 단지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간 단계이거나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선입관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다.⁴³

김영래는 도널드 조이(Donald M. Joy)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던 모습을 통해 어린이에게 제공되어야 할 그들만의 환경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1) 각각의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인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존중해야 하며, (2) 어린이다움의 신앙을 확증하고, (3) 전적으로 기독교인다운 전통과 가치 그리고 신앙과 사람의 모습에 입각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⁴⁴고 했다.

⁴¹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다산글방, 2002), 93.

⁴²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11).

⁴³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95~96.

⁴⁴ Donald M. Joy, “Why Reach and Teach Children,” in Robert E. Clark, Joanne Brubaker, Roy B. Zuck, and Zuck Brubaker, eds,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Chicago: MoodyPress, 1986), 13.

셋째로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는 부모의 전물이나 소유물, 또는 성인들의 상업적인 도구가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일차적 돌봄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신명기 6:6-7⁴⁵의 말씀에서 밝히듯이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⁴⁶

마지막으로 신앙공동체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때문에 어린이는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 조직이므로, 혈연관계를 뛰어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신앙공동체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김영래는 찰스 포스터(Charles Foster)의 말을 인용하면서 "신앙공동체는 본질적으로 (1) 세대 간을 연결시키고(binding the generation) (2) 동반자 관계를 육성하며(nurturing partnership) (3) 낯선 사람들을 이웃으로 묶어주는(linking strangers as neighbors) 역할을 수행해 왔다."⁴⁷고 했다. 때문에 어린이를 돌보는 영적 가족으로 신앙공동체는 어린이의 문제를 함께 염려하고 친밀하게 믿음을 세워주는 연결체가 되어야 한다. 만일 신앙공동체가 어린이를 위한 보호와 지원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신앙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⁴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학적인 의미와 어린이가 어린이답다는 것은 (1)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에도 어린이는 예수그리스도의

⁴⁵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6-7).

⁴⁶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99.

⁴⁷ Charles R. Foster, *Education Congregation: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1994), 62-67.

⁴⁸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102.

순전함을 보전하고 있는 존재이며 (2) 어른과 구별되고 독자적인 발달과 성장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 존재이고 (3) 부모에게 부여된 일차적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4)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욕심과 독선에 의해 자신들만의 시간과 장소를 빼앗긴 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성세대와 교회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린이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린이 시기의 소멸"과 "성장을 재촉 받는 어린이" 증후군의 피해자로 전락한 어린이를 구출해야 하는 책임과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⁴⁹

이를 위해 어린이를 교회목회의 구조 속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함께 예배에 참여 하고, 그들이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적합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어린이를 돌보는 이들이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의 양육을 위한 교훈과 지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린이 목회를 위한 전문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함께 성경공부에 참여하며, 어렸을 때부터 신학적인 체계도 잡아줘야 하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통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목회적 근거

필자가 14세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적인 은혜였다. 시골 마을 친구들은 전부 토요 학생회에

⁴⁹ Ibid., 101~102.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필자 혼자 가지 않았다. 친구가 다른 마을에서 놀러 왔는데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교회에 가보았다. 교회 밖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슬픈 마음이 들었다. “나는 뭐지?” 이 때 광고를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 오후 교회 대청소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날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후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때 처음 읽기 시작한 성경은 꿀처럼 달고 오묘했다. 지금 목회를 하는 중에도 그 때 읽었던 성경 지식이 나의 신앙의 주춧돌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비록 어린 시절 성경을 통으로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단숨에 읽어 간 성경은 지금의 목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목회적 근거는 무엇일까? 아래의 성경이야기들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알게 해야 할 목회적 의미와 목적을 제시해준다.

120세가 된 모세는 그의 생을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간절하게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가나안 입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더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게 하라는 것이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존귀하다 인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에 모세가 순종한다. 우리 생을 마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이제 누군가에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라고 부탁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⁵⁰

⁵⁰ 조병호, *신문성경통독*, 49.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인 만나세대⁵¹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친다. 만나세대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성장하는 세대들이다. 모세는 이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쳤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있었다.⁵² 그것은 바로 말씀 훈련이었다.

다윗은 70세에 삶을 마감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만 받으셨다. 대신 그의 아들 대에 하라는 것이다. 다윗은 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여호와와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아름다웠으니 너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져 놓았다. 아버지의 유언이 아들의 비전이 된 것이다. 다윗은 열심히 아들 솔로몬에게⁵³ 모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 지킬 것을 말씀하였다. 20세가 된 솔로몬이 힘에 버거운 나라이겠지만 솔로몬에게 20세까지 말씀 교육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세대에게 어릴적 부터 가르쳐야 할 목회적 근거이다.

신약에서 60세를 바라보며 인생의 끝자락에 선 사도 바울에게도 마음 한 켠에 간절한 열망이 남아 있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⁵¹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동독원, 2014), 111. 참조. “만나세대-약 40년 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기까지 그동안 오랜 준비가 있었다. 그드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던 출애굽, 결코 쉽지 않았던 40년의 광야생활..., 시간이 흘러 출애굽세대는 세상을 뜨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 즉 만나세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 신명기의 말씀을 기반으로 만나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의 1세대가 되는 것이다”고 정리함.

⁵²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수 1:8).

⁵³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왕상 2:2-3).

서버나를 가고 싶어하였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행1:8)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자신의 당대에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⁵⁴에게 유언한다. 나의 끝이 너의 시작, 곧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끝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인생 끝자락에 진정한 목표가 되었다.⁵⁵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의 꿈,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꿈, 그리고 바울에게 땅 끝 서버나를 향한 꿈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남은 꿈은 유언이 되어 여호수아, 솔로몬, 디모데의 놀라운 비전이 되었다. 우리의 유종에 남길 유언이 예수 안에서 누군가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꿈을 꾀본다.⁵⁶

어려서부터 다음세대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그들의 세대를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해야 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도록 목회적 관점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꿈이 어린이들의 꿈이 되도록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통독시켜야 한다.

필자는 지금 만 5세가 된 늦둥이 막둥이 율린이가 있다. 율린이를 상대로 임상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를 통해서 언어학습을 하도록 했다.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보았고 이 아이에게 유튜브 동영상들 중에 영어를 습득하게 했다. A,

⁵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4-15).

⁵⁵ 조병호, *신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49~50.

⁵⁶ Ibid.

B, C, D... 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언어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험했다. 이미 3세 때부터 필자와 함께 가평 통독원에 다니면서 오가는 8시간 넘도록 앉아서 습득하는 기회들을 만들어 갔고, 항상 영어, 히브리어 찬양을 듣게 하였다. 영어는 이미 대소문자를 쓰고 읽을 줄 안다. 영어는 이제 단어들을 스펠링을 불러주면서 습득하게 하니 아이가 쉽게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어는 유치원에서 배워가고 있어서 잘한다. 언어부분에서 유치원 선생님께서도 영어에 대한 부분은 원어민 버금가는 발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제 만 5세가 되면서 단어들을 외워가고 있는데 원어민들처럼 영어환경 속에 살아가지 못하지만 일상 생활 중에서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면 유학을 가지 않아도 언어가 습득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학원을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부모가 관심을 갖고 아이를 교육하면 된다. 부모가 불안해 하지 않고 아이와 깊은 교제 가운데 교육을 하게 된다면 아이에게 있어서 우리는 좋은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⁵⁷

⁵⁷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혀야 하는지 아이들의 지능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글레만은 그의 책에서 “지능을 몇 배나 증가하게 하기 위한 최초의 단계는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루 몇 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그 마음만 있으면 셰익스피어까지 읽어 나가는 일도 가능하다. 만일 어떤 이유로 아이에게 한 가지밖에 가르칠 수 없는 때는 그 한 가지는 의심할 여지없이 읽기여야 한다. 모든 학습의 기초는 읽기다.” 고 말하면서 몇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1) 5세 이하의 유아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쉽게 흡수한다. 4세라면 더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흡수한다. 3세 이하라면 더 훨씬 간단하고 효율도 좋다. 2세 이하의 경우가 가장 간단하고 효율도 높다. (2) 5세 이하의 유아는 눈부신 속도로 정보를 받아들인다. (3) 5세 이하에서 흡수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뒤까지 기억에 남는 양도 많다. (4) 5세 이하의 유아에게는 굉장한 양의 에너지가 있다. (5) 5세 이하의 유아는 굉장한 학습 의욕을 갖고 있다. (6) 5세 이하의 유아는 읽기를 배울 수 있으며 배우고 싶어하고 있다. (7) 5세 이하의 유아는 완전히 하나의 말을 배우며 적절하게 배운 수만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고했다. 구어(口語)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쉽게 1개 국어 혹은 수개 국어의 일기를 배울 수 있다. 실제로 구어 이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다. 부모가 아이에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참으로 흥미로운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유아에게 읽기를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레만은 “유아 자신의 입장에 선다면, 일찍부터 시작하면 할수록 간단하고 생후 3개월 내지 6개월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고이며, 생후 1년이라도 매우 좋다. 2세 이후로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어려워져 간다. 아이가 5세라면 6세보다 쉽다. 4세 쪽이 5세 보다 더 쉽고, 3세 쪽이 4세보다 더 쉽게 익힐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렌 도만, *야기의 지능은 무한하다* (서울: 민지사, 2006), 258.

유대인들의 미쉬나에서 인생의 나이를 아래의 표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⁵⁸

<표2> 유대인들의 인생 나이 구분

5세는 - 성경을 읽는 시기	40세-지성의 시기
10세 - 미쉬나를 배우는 시기	50세-지혜의 시기
13세-계명을 실천하는 시기	60세-노년의 시작
15세-탈무드를 배우는 시기	70세-황혼의 시기
18세-결혼의 시기	80세-기력이 쇠하는 시기
20세-생업과 사회생활의 시기	90세-허리가 휘는 시기
30세-활력의 시기	100세-죽음과 같은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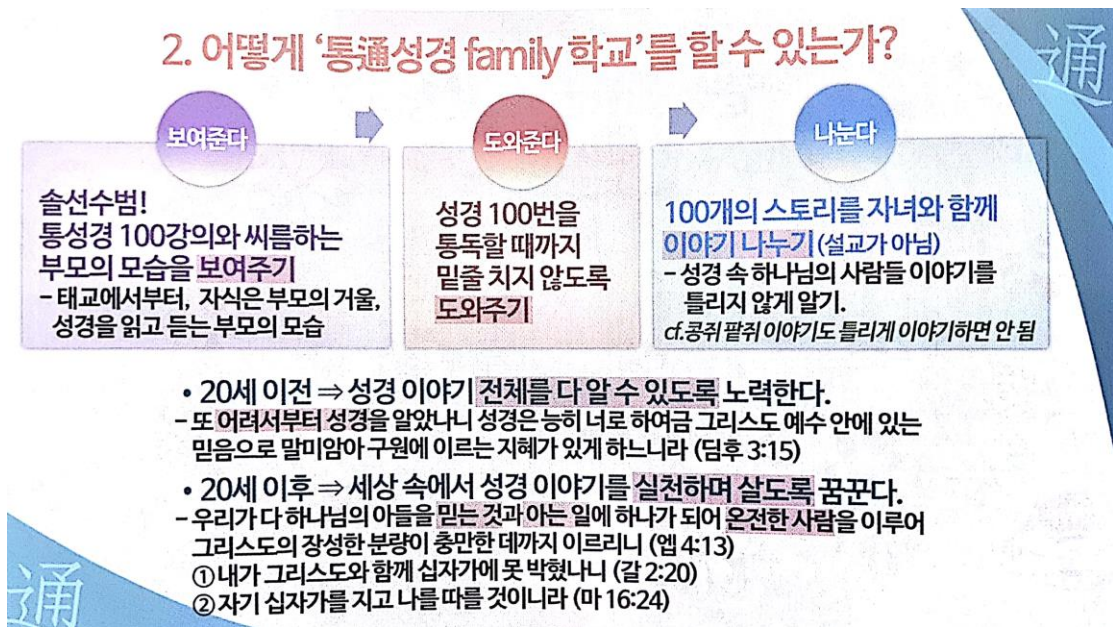
이는 5세부터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통독을 역사순으로 하도록 해야함을 일러준다. 어릴수록 좋다. 유대인의 가정도 그렇듯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함께 통독하며 강론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

어릴수록 큰 그림을 그려주고,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제사장 나라 그리고 가정과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지도 해야 할 목회적 근거이다.

조병호는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3에서 그는 도표를 통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

⁵⁸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416.

<표3> 어떻게 '통성경 Family학교'를 할 수 있을까?⁵⁹



교회와 부모는 어린이들에게 본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다독하도록 도와 준다. 마지막으로 100개의 스토리를 자녀와 함께 설교가 아닌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면서 어린이들은 20세 이전에 성경 이야기 전체를 다 알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20세 이후에는 세상 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⁵⁹ 조병호,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북3, 172.

제 IV 장

통성경과 광명서현교회 어린이들의 사례

광명서현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영향력 있는 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 통성경을 시작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목회자인 필자가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선 성경 읽기가 수월 해졌고, 설교자로서 성경을 역사순으로 이해하면서 말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자신 있게 전하게 되었다. 성도들의 변화도 있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어린이들의 삶에서 성경이 중심이 되는 고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광명서현교회 어린이들의 통성경적 영적성장

광명서현교회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 성경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며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열쇠는 바로 성경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한다. 통성경은 필자에게 이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통성경을 통해 인본주의적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신본주의적 삶을 살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광명서현교회에서는 통독원 조병호의 통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부교역자시절부터 필자는 조병호의 성경통독을 기초로 삼아 사역을 감당해왔다.

오랫동안 필자는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하는 생각을 해왔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에게 모세오경을 중점으로 읽게 하기 시작했다. 전 교인 여름수련회가 끝난 후 1박2일로 성경학교를 별도로 개최하여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읽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자 했다.

당시 필자가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교회 안의 재직자들조차도 성경을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젊은 세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예배 한번 드리지 않았고, 부모가 술선수범하여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TV드라마와 게임에 빠져 있거나, 또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음주와 흡연으로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어린이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매년 모세오경을 일독하는 목표를 정했다. 광주서현교회에서 부교역자로 7년 동안 섬기면서 '모세오경 다독' 성경학교를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교사들도 왜 이 프로그램을 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필자에게 의구심을 표시했다. 또한 어린이들은 성경통독에 집중을 못하고 10분도 견디기 어려워했다.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어린이들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원하는 만큼 쉬게 하면서도 성경읽기를 계속했다. 그 후 어린이들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집중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때 사용한 교재는 조병호의 성경통독 48시간 성경통독이었다. 통독이 계속되자 아이들은 집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성경통독에 열중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본문을 눈으로만 따라가게 되면 힘들고 졸음이 오기 때문에 색연필을 주어 색을 칠하도록 했다. 성경통독을 해본 적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그 시간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 둘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숨 소리는 사라지고 말씀에 집중하며 밀줄을 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성경통독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몇몇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성경을 함께 읽지 못한 것을 반성하게 됐다. 이 후 모세오경 성경읽기표를 직접 만들어 매주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읽은 분량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성경통독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모세오경통독은 필자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통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다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필자는 셋째 아들인 '우린'에게 모세오경을 여러 번 읽게 했다. 처음에는 부모가 강요하니 마지못해 읽었다. 하지만 필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린'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우린'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발견했고 성경통독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하나님께서 우린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아래의 표는 성경학교 때 사용했던 성경 읽기표이다. 이 표는 성경학교 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요일 별로 어린이들에게 통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주일에 1번 교회에 가지고 와 선생님들이 점검을 하고, 통독한 분량을 1년에 2번 있는 달란트 시장에 달란트로 환산해주어 어린이들이 즐겁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MO5 성경 읽기표

_____ 목장 _____ 반 Name _____ Date _____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일확인
	1~50	1~40	1~27	1~36	1~34	
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Bible Memory			선생님 _____ (인)		매주 외출 앞씀 확인해 주세요.	

 광명서연교회 아동주일학교

<표4> 광명서연교회 아동주일학교 성경읽기표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을 시작한다
 주중에 매일 매일 읽는 장수를 체크하고 본인이 체크한다.
 주일학교 예배에 가지고 나와 담당선생님께 확인을 받는다.
 담당선생님은 확인하고 담당교역자에게 제출한다.
 교역자는 제출한 학생별로 통계를 낸다.
 학생 달란트에 합산한다.

광명서연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면서 본격적인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본 연구 프로젝트는 광명서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3년 동안 진행된 내용이다. 필자는 처음 통성경에 접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계기를 얻었다. 이런 본인의 경험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4년 10월 광명서연교회에 위임을 받고, 11월 통독원 렉처리코스 10 주 과정을 등록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성도들과 함께 새벽예배 시간 1년 365일 통독성경으로 매일 성경통독을 했다. 필자도 성경통독교재로 학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대행진 진행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어렵지만 매일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곧 성경일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새벽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에는 2일 분량의 성경을 순서대로 통독하게 했다. 교재는 통독원에서 발행한 일년일독 통성경으로 진행하였다.

동일한 해에 통성경 길라잡이를 가지고 주일예배 설교를 하였다. 처음 성경말씀으로만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했다. 성도들도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다. 그러나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다. 최00 권사로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만 가지고 하시니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려웠는데 3개월이 지나니 이제 조금 이해를 할 것 같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다. 기복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기에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열방을 향한 꿈을 설교로 한다는 자체가 낯 설은 이야기일 수 있었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하지만 시간은 늘 정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었다.

새벽 프로젝트의 순서

일년 일독 통독성경 교재에 따라 새벽기도회 성경읽기를 역사순으로 바꿨다. 성경통독을 진행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가를 주안점으로 두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도들이 가정에 돌아가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성경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길 기대했다. 보통 성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한다. 그 하나는 영적성숙을 위한 성경읽기이고 또 하나는 기도생활이다. 때문에 교회가 예배와 기도회에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면 성도들의 성경읽기와 기도생활의 목표달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래서 광명서현교회에서 실행한 새벽기도회 역사순 성경읽기는 성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모임은 매일매일 정해진 성경을 읽고, 본문요약을 함께 나누며, 인도자 목사가 묵상과 설교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a. 신앙고백 (AM 5:00): 시간과 함께 신앙고백을 먼저한다.
- b. 찬송 부르기(AM5:05): 말씀과 관련된 찬송가 한 장을 선택하여 부른다.
- c. 1년 1독 통독성경 따른 성경 통독: 모든 분량을 교독한다.
- d. 성경교독이 끝나면 성경 본문 내용 설명과 설교: 인도자는 성경내용을 배경과 함께 잠시 설명하고 묵상한 말씀을 간단하게 설교한다.
- e. 기도: 말씀이 끝나면 인도자는 주어진 말씀으로 기도를 한다.
- f. 인도자의 마침 기도와 함께 주님기도로 마친다.
- g. 통성기도: 예배가 끝나면 함께 주님을 1번 외치면서 주어진 말씀대과 은혜 받은 말씀대로 기도를 한다.

이렇게 진행된 프로젝트를 통해 1년 1독을 완결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순으로 한번 통독했다는 자부심과 감동을 경험했다.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새벽예배 프로젝트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질 문1: 1년1독 역사순으로 말씀대행진을 진행할 때 어떠셨는가?

응답: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다.

질 문2: 1년1독 성경으로 3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말씀 대행진 가운데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는가?

응답: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되었지만, 3년 매일 새벽에 진행되는 말씀 행진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은혜를 느낀다.

질 문3: 말씀의 깊이를 어떻게 느껴 가시는지 적어주십시오.

응답: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어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보여주셨다.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마지막으로 채림 주를 기다리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함을 깨달았다. 또는 말씀을 스토리텔링형식으로 생각하며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부담감을 느낀다.

질 문4: 새벽예배를 나오셔서 주로 묵상하시는 말씀으로 기도가 되는지요?

응답: 그렇다.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한다.

역사순으로 새벽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원한다.

전 성도 역사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대행진

역사순 365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대행진은 매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여기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참여를 격려했다. 광명서현교회는 1년 1독이 목표이지만 전 교인들이 일독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권한다. 처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자체에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역사순으로 성경통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성도들과 어린이들이 서로 도전을 주고 격려하게 되었다. 이제는 모두가 성경은 당연히 읽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담임목사가 5세부터 성경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뿐만 아니라 성인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한편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두 번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통독은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다음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성도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질문1: 성경통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통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어가고 있다.

질문2: 성경을 읽을 때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좀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답을 해주었다.

질문3: 성경통독을 하고 교회 말씀을 들음을 통해 자녀 교육을 위해 어떤 방법을 힘쓰는지요?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자녀들이 꾸준함은 아직 없지만 통독읽기표대로 역사순으로 읽어가도록 하고 있으며, 말씀을 읽고 나서는 자녀들과 교제의 시간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답하였다.

질문4: 광명서현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성경적 역사순의 말씀이 어렵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거의 모두가 말씀 이해가 쉽다고 답하였다.

질문5: 계속 성경통독을 진행하겠습니까?의 질문에 1년에 1독이 대부분이지만, 2~5독도 나오면서 다독에 힘쓰겠다고 답하였다.

질문6: 부모인 기성교인으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권면으로 믿음을 지켜 가도록 양육해야겠다고 답하였다.

질문7: 성경통독 역사순에 대한 소감에 대한 질문에 창조와 죄로 인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성경으로 개인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답하였다.

<표5> 통성경 길라잡이 설교요약 주보


주 일 예 배 순 서

오전 11:00 인도-설교 : 오인찬목사

※경배와 찬양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다 함 케
 ※묵상과 기원 --- --- 다 함 케
 ※관 송 --- 25장 --- 다 함 케
 ※교 독 문 --- 13번 시편 23편 --- 인도자와 회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많을 곳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여 주의 거역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하여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취권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의 경에 영원을 살리로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함 케
 관 송 --- 421장 --- 다 함 케
 대표기도 --- 김범진장로
 성경봉독 --- 롬 1: --- 다 함 케
 관 양 --- 관양대
 봉헌기도 --- 헌금위원회
 말씀선포 --- 다음세대를 위한 우리의 선택 - 오인찬목사
 교역소식및새교우환영 --- 인도자
 ※관 송 --- 425장 --- 다 함 케
 ※축복기도 --- 오인찬목사
 ※배 피 --- 쾰 교

※표는 일어서서... 
 ♥예배 10분전에 오시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하늘나라 식구 공동체에배

오후 1:30 인도-설교 : 오인찬목사

예배 찬양 / 키즈들과 경배와 찬양 / 다 함 케
 기 도 / 유자숙권사
 교역소식 / 인도자
 성경봉독 / 다 함 케
 말씀선포 /

관 송 / 407장 / 다 함 케
 축복기도 / 설 교 자

수요일밤 예배순서

오후 7:30 인도-설교 : 오인찬목사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함 케
 예배찬양 / 키즈들과 경배와 찬양 / 다 함 케
 기 도 / 오우현권사(김주환)
 성경봉독 / 신명기 6장 4-9 / 인도자
 말씀선포 / 통성경세나나
 관 송 / 199장 / 다 함 케
 경교 및 축복기도 / 설 교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과 주일에 만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새벽 5:00 주일-월-화-수-목-금-(토) 인도 : 오인찬목사

요일	5월	1년1독	통독순서	기도	계	목
주일	7	150	시143-150편	주일예배	요한과 밀 요가	장로의 복음포
월	8	156	왕상12-14장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제의기도를		
화	9	180	왕상15-16:20	중동부, 고등부가 제의기도를		
수	10	161	왕상16:21-17장	청년회가 제의기도를	나와와 민족을 위해	
목	11	162	왕상18-19장	영화, 성도들의 담력, 자립을 위해		
금	12	183	왕상20-22장	남진교회 구역, 주년 기념의 복음포를 위해		
토	13	164	왕하1-2장	예전교회 주일공회와제 성도들을 위해		

통통성경 길라잡이

그레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첫째, 성경은 읽은 책입니다.
 둘째, 성경을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셋째,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입니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다섯째, 성경은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모든 민족적 책입니다.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견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7만다/ 사랑의 줄(17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 북왕국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소멸 (왕하15장/대하12-27장/ 사1-6장)
- 아하스의 선함과 이스라엘의 종교 (왕하15-17장/ 대하28장/ 사7-14장)
- 히스기야의 선함과 이스라엘의 종교 (왕하18-20장/ 대하29-32장/ 사15-39장)
- 이스라엘의 미래 예언(사40-66장)
- 미가의 사역과 모시 이야기 (미1-7장)

B.C. 8세기, 앗수르 제국이 그 세력을 팽창하고 있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당시는 북쪽에서 그 세력을 키우고 있는 앗수르에 의해 남쪽의 애굽까지 침공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남북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앗수르나 바빌론,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례를 경령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와 호세아의 외침에도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B.C.722년이었습니. 이 무렵, 남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합니다. 이 두 선지자는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바빌론에 의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날이 올 것임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유다 백성 가운데 심심한 사람들을 남겨 놓으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이 상적인 왕,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며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표6> 역사순 1년1독 성경읽기표

역사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대행진

1년1독 성경통독표														
월	일	순서	범위	확인	월	일	순서	범위	확인	월	일	순서	범위	확인
1	1	1	창1~2장	◇	2	1	32	출39-40장	◇	3	1	60	신5-6장	◇
	2	2	창3-5장	◇		2	33	레1-5장	◇		2	61	신7-9장	◇
	3	3	창6-9장	◇		3	34	레6-7장	◇		3	62	신10-11장	◇
	4	4	창10-11장	◇		4	35	레8-10장	◇		4	63	신12-14장	◇
	5	5	창12-14장	◇		5	36	레11-13장	◇		5	64	신15-17장	◇
	6	6	창15-17장	◇		6	37	레14-15장	◇		6	65	신18-21장	◇
	7	7	창18-21장	◇		7	38	레16-17장	◇		7	66	신22-26장	◇
	8	8	창22-24장	◇		8	39	레18-20장	◇		8	67	신27-28장	◇
	9	9	창25-27장	◇		9	40	레21-22장	◇		9	68	신29-30장	◇
	10	10	창28-30장	◇		10	41	레23-25장	◇		10	69	신31-32장	◇
	11	11	창31-33장	◇		11	42	레26-27장	◇		11	70	신33-34장, 시90편	◇
	12	12	창34-36장	◇		12	43	민1-2장	◇		12	71	수1-2장	◇
	13	13	창37-38장	◇		13	44	민3-4장	◇		13	72	수3-5장	◇
	14	14	창39-41장	◇		14	45	민5-6장	◇		14	73	수6-8장	◇
	15	15	창42-44장	◇		15	46	민7-8장	◇		15	74	수9-12장	◇
	16	16	창45-47장	◇		16	47	민9-10:10	◇		16	75	수13-17장	◇
	17	17	창48-50장	◇		17	48	민10:11-12장	◇		17	76	수18-19장	◇
	18	18	출1-2장	◇		18	49	민13-14장	◇		18	77	수20-22장	◇
	19	19	출3-4장	◇		19	50	민15-17장	◇		19	78	수23-24장	◇
	20	20	출5-7장	◇		20	51	민18-19장	◇		20	79	삿1-2:10	◇
	21	21	출8-10장	◇		21	52	민20-21장	◇		21	80	삿2:11-5장	◇
	22	22	출11-13장	◇		22	53	민22-25장	◇		22	81	삿6-7장	◇
	23	23	출14-15장	◇		23	54	민26-27장	◇		23	82	삿8-9장	◇
	24	24	출16-18장	◇		24	55	민28-30장	◇		24	83	삿10-12장	◇
	25	25	출19-20장	◇		25	56	민31-32장	◇		25	84	삿13-16장	◇
	26	26	출21-23장	◇		26	57	민33-36장	◇		26	85	삿17-18장	◇
	27	27	출24-27장	◇		27	58	신1-2장	◇		27	86	삿19-21장	◇
	28	28	출28-29장	◇		28	59	신3-4장	◇		28	87	삿1-4장	◇
	29	29	출30-31장	◇		29					29	88	삼상1-3장	◇
	30	30	출32-34장	◇							30	89	삼상4-7장	◇
	31	31	출35-38장	◇							31	90	삼상8-10장	◇



1년1독 성경통독표														
월	일	순서	범위	확인	월	일	순서	범위	확인	월	일	순서	범위	확인
4	1	91	삼상 11~12장	◇	5	1	121	잠 21~24장	◇	6	1	152	시 91~102편	◇
	2	92	삼상 13~14장	◇		2	122	잠 25~29장	◇		2	153	시 103~106편	◇
	3	93	삼상 15~16장	◇		3	123	잠 30~31장	◇		3	154	시 107~118편	◇
	4	94	삼상 17~18장	◇		4	124	아 1~4장	◇		4	155	시 119편	◇
	5	95	삼상 19장, 시56편	◇		5	125	아 5~8장	◇		5	156	시 120~134편	◇
	6	96	삼상 20~21장, 시34편	◇		6	126	왕상 11장	◇		6	157	시 135~142편	◇
	7	97	삼상 22장, 시52편	◇		7	127	전 1~3장	◇		7	158	시 143~150편	◇
	8	98	삼상 23~24장, 시57편	◇		8	128	전 4~7장	◇		8	159	왕상 12~14장	◇
	9	99	삼상 25~26장, 시54편	◇		9	129	전 8~12장	◇		9	160	왕상 15~16:20	◇
	10	100	삼상 27~31장	◇		10	130	읍 1~3장	◇		10	161	왕상 16:21~17장	◇
	11	101	삼하 1~2장	◇		11	131	읍 4~7장	◇		11	162	왕상 18~19장	◇
	12	102	삼하 3~5:5	◇		12	132	읍 8~10장	◇		12	163	왕상 20~22장	◇
	13	103	삼하 5:6~6장	◇		13	133	읍 11~14장	◇		13	164	왕하 1~2장	◇
	14	104	삼하 7~10장	◇		14	134	읍 15~17장	◇		14	165	왕하 3~5장	◇
	15	105	삼하 11~12장, 시51편	◇		15	135	읍 18~19장	◇		15	166	왕하 6~8장	◇
	16	106	삼하 13~14장	◇		16	136	읍 20~21장	◇		16	167	왕하 9~10장	◇
	17	107	삼하 15장, 시3편	◇		17	137	읍 22~24장	◇		17	168	왕하 11~14장	◇
	18	108	삼하 16~17장	◇		18	138	읍 25~31장	◇		18	169	암 1~5장	◇
	19	109	삼하 18~20장	◇		19	139	읍 32~37장	◇		19	170	암 6~9장	◇
	20	110	삼하 21~22장	◇		20	140	읍 38~42장	◇		20	171	호 1~4장	◇
	21	111	삼하 23~24장	◇		21	141	시 1~2, 4~9편	◇		21	172	호 5~9장	◇
	22	112	왕상 1~2장	◇		22	142	시 10~18편	◇		22	173	호 10~14장	◇
	23	113	왕상 3~4장	◇		23	143	시 19~27편	◇		23	174	욘 1~4장	◇
	24	114	왕상 5~7장	◇		24	144	시 28~33편	◇		24	175	왕하 15~16장	◇
	25	115	왕상 8장	◇		25	145	시 35~41편	◇		25	176	왕하 17장~18:12	◇
	26	116	왕상 9~10장	◇		26	146	시 42~50, 53편	◇		26	177	사 1~3장	◇
	27	117	잠 1~5장	◇		27	147	시 55~56, 58, 60~66편	◇		27	178	사 4~7장	◇
	28	118	잠 6~9장	◇		28	148	시 67~72편	◇		28	179	사 8~12장	◇
	29	119	잠 10~15장	◇		29	149	시 73~78편	◇		29	180	사 13~17장	◇
	30	120	잠 16~20장	◇		30	150	시 79~85편	◇		30	181	사 18~20장	◇
					31	151	시 86~89편	◇						



역사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대행진

1년1독 성경통독표														
월	일	순서	범위	확인	월	일	순서	범위	확인	월	일	순서	범위	확인
7	1	182	사 21~24장	◇	8	1	213	렘 34~36장	◇	9	1	244	겔 4~7장	◇
	2	183	사 25~29장	◇		2	214	렘 37~38장	◇		2	245	겔 8~11장	◇
	3	184	사 30~35장	◇		3	215	왕하 25장, 렘39~41장	◇		3	246	겔 12~14장	◇
	4	185	왕하 18:13~37, 사36장	◇		4	216	렘 42~45장	◇		4	247	겔 15~17장	◇
	5	186	왕하 19장, 사37장	◇		5	217	렘 46~48장	◇		5	248	겔 18~20장	◇
	6	187	왕하 20장, 사38~39장	◇		6	218	렘 49~50장	◇		6	249	겔 21~22장	◇
	7	188	사 40~42장	◇		7	219	렘 51~52장	◇		7	250	겔 23~24장	◇
	8	189	사 43~45장	◇		8	220	애 1~2장	◇		8	251	겔 25~28장	◇
	9	190	사 46~50장	◇		9	221	애 3~5장	◇		9	252	겔 29~32장	◇
	10	191	사 51~55장	◇		10	222	읍 1장	◇		10	253	겔 33~35장	◇
	11	192	사 56~59장	◇		11	223	대상 1~3장	◇		11	254	겔 36~37장	◇
	12	193	사 60~63장	◇		12	224	대상 4~5장	◇		12	255	겔 38~39장	◇
	13	194	사 64~66장	◇		13	225	대상 6~9장	◇		13	256	겔 40~41장	◇
	14	195	미 1~3장	◇		14	226	대상 10~12장	◇		14	257	겔 42~43장	◇
	15	196	미 4~7장	◇		15	227	대상 13~16장	◇		15	258	겔 44~46장	◇
	16	197	왕하 21~23장	◇		16	228	대상 17~20장	◇		16	259	겔 47~48장	◇
	17	198	슘 1~3장	◇		17	229	대상 21~22장	◇		17	260	단 1~2장	◇
	18	199	합 1~3장	◇		18	230	대상 23~26장	◇		18	261	단 3~4장	◇
	19	200	나 1~3장	◇		19	231	대상 27~29장	◇		19	262	단 5~6장	◇
	20	201	율 1~3장	◇		20	232	대하 1~4장	◇		20	263	단 7~9장	◇
	21	202	왕하 24장, 렘1~3장	◇		21	233	대하 5~7장	◇		21	264	단 10~12장	◇
	22	203	렘 4~6장	◇		22	234	대하 8~9장	◇		22	265	스 1~2장	◇
	23	204	렘 7~9장	◇		23	235	대하 10~13장	◇		23	266	스 3~4장	◇
	24	205	렘 10~13장	◇		24	236	대하 14~17장	◇		24	267	학 1~2장	◇
	25	206	렘 14~16장	◇		25	237	대하 18~22장	◇		25	268	속 1~6장	◇
	26	207	렘 17~20장	◇		26	238	대하 23~25장	◇		26	269	속 7~10장	◇
	27	208	렘 21~23장	◇		27	239	대하 26~28장	◇		27	270	속 11~14장	◇
	28	209	렘 24~25장	◇		28	240	대하 29~31장	◇		28	271	스 5~6장	◇
	29	210	렘 26~28장	◇		29	241	대하 32~33장	◇		29	272	에 1~5장	◇
	30	211	겔 29~31장	◇		30	242	대하 34~36장	◇		30	273	에 6~10장	◇
	31	212	렘 32~33장	◇		31	243	겔 1~3장	◇					



역사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대행진

1년1독 성경통독표														
월	일	순서	범위	확인	월	일	순서	범위	확인	월	일	순서	범위	확인
10	1	274	스 7~8장	◇	11	1	305	눅 21~22장	◇	12	1	335	행 20:1~6, 롬1~3장	◇
	2	275	스 9~10장	◇		2	306	눅 23~24장	◇		2	336	롬 4~7장	◇
	3	276	느 1~3장	◇		3	307	요 1~3장	◇		3	337	롬 8~11장	◇
	4	277	느 4~7장	◇		4	308	요 4~6장	◇		4	338	롬 12~14장	◇
	5	278	느 8~10장	◇		5	309	요 7~8장	◇		5	339	롬 15~16장	◇
	6	279	느 11~13장	◇		6	310	요 9~11장	◇		6	340	행 20:7~23장	◇
	7	280	말 1~4장	◇		7	311	요 12~13장	◇		7	341	행 24~26장	◇
	8	281	말 1~4장	◇		8	312	요 14~15장	◇		8	342	행 27~28장	◇
	9	282	마 5~7장	◇		9	313	요 16~17장	◇		9	343	엡 1~3장	◇
	10	283	마 8~10장	◇		10	314	요 18~19장	◇		10	344	엡 4~6장	◇
	11	284	마 11~13장	◇		11	315	요 20~21장	◇		11	345	빌 1~4장	◇
	12	285	마 14~16장	◇		12	316	행 1~2장	◇		12	346	골 1~4장	◇
	13	286	마 17~20장	◇		13	317	행 3~5장	◇		13	347	몬 1장	◇
	14	287	마 21~23장	◇		14	318	행 6~9장	◇		14	348	딤후 1~6장	◇
	15	288	마 24~25장	◇		15	319	행 10~12장	◇		15	349	딤후 1~3장	◇
	16	289	마 26~28장	◇		16	320	행 13장~15:35	◇		16	350	딤후 1~4장	◇
	17	290	막 1~3장	◇		17	321	행 15:36~18:22	◇		17	351	히 1~4장	◇
	18	291	막 4~6장	◇		18	322	살전 1~5장	◇		18	352	히 5~10장	◇
	19	292	막 7~8장	◇		19	323	살후 1~3장	◇		19	353	히 11~13장	◇
	20	293	막 9~10장	◇		20	324	갈 1~3장	◇		20	354	약 1~5장	◇
	21	294	막 11~13장	◇		21	325	갈 4~6장	◇		21	355	벧전 1~5장	◇
	22	295	막 14~16장	◇		22	326	행 18:23~19장	◇		22	356	벧후 1~3장	◇
	23	296	눅 1~2장	◇		23	327	고전 1~4장	◇		23	357	유 1장	◇
	24	297	눅 3~4장	◇		24	328	고전 5~8장	◇		24	358	요일 1~5장	◇
	25	298	눅 5~6장	◇		25	329	고전 9~11장	◇		25	359	요이 1장, 요삼 1장	◇
	26	299	눅 7~8장	◇		26	330	고전 12~14장	◇		26	360	계 1~3장	◇
	27	300	눅 9~10장	◇		27	331	고전 15~16장	◇		27	361	계 4~7장	◇
	28	301	눅 11~13장	◇		28	332	고후 1~4장	◇		28	362	계 8~11장	◇
	29	302	눅 14~16장	◇		29	333	고후 5~9장	◇		29	363	계 12~15장	◇
	30	303	눅 17~18장	◇		30	334	고후 10~13장	◇		30	364	계 16~18장	◇
	31	304	눅 19~20장	◇							31	365	계 19~22장	◇



수요일 통성경 길라잡이 설교

이미 1년 동안 통성경 길라잡이는 주일설교를 통해 소개되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수요예배에서 다시 한번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필자에게는 두 번째로 같은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용이한 면이 있어 도움이 되었다. 주보에 본문 이야기를 요약 정리 해서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이것을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다. 설교를 통해 역사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또 한 수요예배에서는 통성경 노래를 부르고, 신명기 6장 4~9절¹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그 주에 나눌

¹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을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통성경 길라잡이 본문을 교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다.

Pre-Step1~2, Step1~ 5/ 성경즐기 수요일에 나누기

반복되는 성경의 내용이었지만 Step 7권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순으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되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일방적인 설교가 아닌 서로 질문과 답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갔다. 소책자이지만 설교를 이야기 형식으로 간결하게 할 수 있어 유익했다. 또한 역사순으로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CBS인터넷 100강의

통성경학교를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었던 것은 통독을 위한 온라인 강의가 개발된 덕이었다. 이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성경통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비록 수강을 위해 등록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그만큼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만족해했다. 현재 광명서현교회에서는 이 100강을 수요예배 시 상영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SNS 카톡으로 2018년 성경본문 내용정리

2018년도에는 SNS를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하늘나라공동체 모임이라는 단체 카톡을 만들어 본문말씀을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4-9).

매일매일 요약 정리된 형태로 다시 묵상함으로써 그날 읽은 말씀을 다시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 통독한 말씀을 다시 요약된 형태로 묵상하면서 성도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은 감동적이다.

광명서현교회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교육

광명서현교회는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모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3,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통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많은 경우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귀찮아서 또는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커다란 취약점이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시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성경적으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²을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배가 방해가 된다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어린이들을 다른 곳에 방치해 둔다면 우리의 어린이들은 무엇을 배우며,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³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의 12 자녀 중 요셉에게 요셉은 그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을

²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³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도록 패밀리스쿨(Family School)을 열어야 한다. 자녀들과 함께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스토리텔링으로 성경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

광명서현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통성경교육

조병호는 CTS 인터넷100강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순서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경 배열 자체가 역사적인 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전체를 통으로 보고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성경통독은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에 유익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조병호가 말하듯이“성경통독은 성경 이야기에 관한 많은 내용을 정리정돈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다.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따라, 부지런히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살피는 것은 성경통독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성경 이야기를 역사적인 흐름으로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 성경의 지식이 들어올 때마다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성경 이야기의 시간 흐름의 기초, 공간 흐름의 기초, 사람들 이야기의 기초, 사건의 관계와 의미에 관한 기초를 가장 잘 정돈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읽기 방법이 바로 성경통독인 것이다.”⁴

에스라 하우스 노우호는 “성경통독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을 잘 정돈하여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읽게 될 때에 성경통독은 성경을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하는데 더욱 유익하다. 성경은 권 별 특성과 메시지를 살려 역사와 연대적 맥락에서 읽어 갈 때, 현장감과 실체감을 갖게 된다.”⁵고 말하고 있다.⁶

광명서현교회에서는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 까지 성경을 역사적 배열과 순서에 맞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슬픔, 분노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익을 얻었다.

광명서현교회는 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성경 한 권으로 교회가 부흥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광명서현교회는 가정의 신앙계승에 있어서 지상교회가 끝나기까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통성경적 역사순으로 교육을 하려고 한다.

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국제성경통독원, 2008), 23-26.

⁵ 배성우, “성경 읽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스라하우스 노우호목사와의 인터뷰,” *목회와 신학* 192(2005), 148.

⁶ 강경태 “성경 통독이 성도의 설교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무학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16), 25.

제 V 장

결 론

요약 및 결론

어린이 성경읽기에 관한 본 연구에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가르칠 수 있고 어린이들도 성경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문제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답을 찾을 때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경 한 권이면 신앙과 삶에 있어서 분명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우주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게 해준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신명기 6장 4-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하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교회학교에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개혁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 한다. 이 사명은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읽기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필자의 경우 비록 목회자의 가정일지라도 네 명의 자녀들이 각각 서로 다른 성향과 개성을 가지고 있어 학습의 흥미도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게 하는 것에는 차이를 두지 않았다. 누구나 성경읽기를 기본적인 과제로 여기게 했다.

성경을 무작정 읽어 내려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성경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채택한 통성경 이야기는 자녀들이 성경을 재미있게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부모들과 교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야 한다. 광명서현교회가 '성경 한 권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 한 권으로 교회가 부흥 할 수 있다'는 목표를 사역의 주제로 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통성경 읽기를 통하여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보여주어야 한다. 35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큰 그림을 그리도록 가르쳤다.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큰 그림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40년을 교육하였다. 40년을 교육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성경을 공부하길 원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큰 그림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다. 비록 나라는 없었지만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교육했다. 그리고 교육이 제국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라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성경교육이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끝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통성경읽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를 기대해본다.

부록1. 통성경 길라잡이

통성경 길라잡이		
1마당	모세5경	하나님의 마음(창1~50장)
2마당	모세5경	열방을 향한 꿈(출1장~민10:10)
3마당	모세5경	만나세대(민10:11~신34장)
4마당	통일왕국	신앙계승(수1장~룻4장)
5마당		통일왕국천년모범(삼상1장~왕상2장)
6마당		통일왕국마음과 지혜(왕상3장~욥42장)
7마당	분열왕국	사랑의 줄 사명의 줄(왕상12장~미7장)
8마당		분열왕국절망 앞에 선 희망(왕하21장~애5장)
9마당		분열왕국징계, 희망의 디딤돌(겔1장~단12장)
10마당		분열왕국재건공동체(스1장~말4장)
11마당	신구약 중간사	'어떻게'와 '이렇게'사이
12마당	4복음서	기쁨을 위한 탄생(4복음서)
13마당		4복음서한 영혼 사랑(4복음서)
14마당		4복음서용서를 향한 열정(4복음서)
15마당		4복음서영광과 평화로의 초대(4복음서)
16마당	바울서신	열리는 제자시대(행1~12장)
17마당		바울서신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행13장~롬16장)
18마당		바울서신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행21장~딤후4장)

19마당 20마당	기타서신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히1장~요삼1장) 기타서신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계1~22장)
--------------	------	--

부록2. 통통성경학교 pre-step1 그순간(The Moment)

통통성경학교 pre-step1 그순간(The Moment)	
1. 움직이는 성막 500년	1. 3개월 된 아기 모세는 왜 갈대 상자를 탔을까?
	2. 움직이는 성막 500년2. 하늘에서 내려온 법-십계명
	3. 움직이는 성막 500년3.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움직이는 성막 500년4. 제사장 나라
2. 예루살렘 성전 1000년	1. 다윗의 도발적 상상-성전
	2. 예루살렘 성전 1000년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방인의 뜰
	3. 예루살렘 성전 1000년3.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가는 곳- 대제사장의 지성소
	4. 예루살렘 성전 1000년4. 현직 대제사장의 부고(訃告)를 기다리는 곳- 도피성
3. 그 순간	1. 십자가의 지성소
	2. 그 순간2.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긴 제사장 나라
	3. 그 순간3. 하나님 나라
4.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통통성경학교 Pre-step2 성경과 영성(Bible and Spirituality)	
I. 성경	
1.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2.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입니다.	
3. 성경은 '1년 10번 들을 책'입니다.	

4.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5.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II. 영성
1. 알고
2. 믿고
3. 순종하고
4. 체험하고
5. 영광들린다

부록3. 통성경학교 Step1-7가지 질문 (7 Question)

통성경학교 Step1 /7가지 질문 (7 Question)	
1.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까지 했는가?	
2.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 했는가?	
3. 왜 스룹바벨, 에스더, 느헤미야는 동시대 동족들에게 존경 받았는가?	
4.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	
5.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6.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테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7.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죽였는가?	

부록4. 통성경학교 Step 2/ 마음훈련 (Heart Training)

통성경학교 Step 2/ 마음훈련 (Heart Training)	
1. 하나님의 마음	11. '어떻게'와 '이렇게'사이
2. 열방을 향한 꿈	12. 기쁨을 위한 탄생
3. 만나세대	13. 한 영혼 사랑
4. 신앙계승	14. 용서를 향한 열정
5. 천년모범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6. 마음과 지혜	16. 열리는 제자 시대

7. 사랑의 줄 사명의 중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8. 절망 앞에 선 희망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9. 징계, 희망의 디딤돌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10. 재건 공동체	20.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부록5. Step1-통통성경학교 step3 -성경즐기

통통성경학교 step3 -성경즐기		
1. 모세오경	1) 원역사-모든 것의 시작	창1~11장
	1. 모세오경2) 족장사-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12~36장
	1. 모세오경3) 입(入)애굽과 민족-지도자 요셉	창37~50장
	1. 모세오경4) 출애굽과 제국-지도자 모세	출1~18장
	1. 모세오경5) 세계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제사장나라 틀(언약궤 만들)	출19~40장
	1. 모세오경6)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제사장 나라 교과서	레
	1. 모세오경7) 만나세대-제사장 나라학교	민
	1. 모세오경8) 만나학교졸업-제사장 나라 학교졸업	신
	1. 모세오경9) 약속의 땅 입성-졸업생 성공 사례	수
	1. 모세오경10)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졸업생 자녀교육 실패 사례	삿
	1. 모세오경11) 교육의 성공 사례 -졸업생 자녀 교육 성공 사례	룻
2. 왕정 500년	12) 미스바 세대- 사무엘의 설득	삼상1~7장
	2. 왕정 500년13) 왕정의 시작-최초의 왕 사울	삼상8~31장
	2. 왕정 500년14) 하나님의 종 다윗-다윗	삼하, 왕상 1~2장
	2. 왕정 500년15) 솔로몬과 시가서-솔로몬	왕상3~11, 잠, 아, 전, 욥, 시

	2. 왕정 500년16) 남북 분열왕조-분단 200년	왕상12~22, 왕하1~14, 암, 호, 은
	2. 왕정 500년17) 북이스라엘 멸망-사마리아인 시작	왕하15~20장, 사, 미
	2. 왕정 500년18) 남유다의 멸망-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하21~23, 습, 합, 나, 율
	2. 왕정 500년19) 잠간의 징계-예레미야의 설득	왕하24~25, 램, 애, 읍, 대상, 대하
3. 페르시아 7권	20) 포로민 설득-에스겔	겔
	3. 페르시아 7권21) 제국 변동의 밑그림-다니엘	단
	3. 페르시아 7권22) 성전 재건- 스룹바벨 총독	스, 학, 습, 애
	3. 페르시아 7권23) 성벽 재건- 느헤미야 총독	느
	3. 페르시아 7권24) 고백과 침묵-1,500년 사랑 고백	말
4. 중간사 400년	25) 헬라 제국과 중간사-수전절 시작	
	4.중간사 400년26) 로마 제국과 중간사-분봉 왕 시작	
5.4복음서	27) 예수님의 탄생-기쁨을 위한 탄생	마
	5.4복음서28) 공생애 3년-한 영혼 사랑	막
	5.4복음서29) 마지막 일주일- 용서를 향한 열정	눅
	5.4복음서30)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요
6.사도행전 30년	31) 열리는 제사 시대 -그리스도인의 시작	행1~12장

	6.사도행전 30년32)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	행13~15:35
	6.사도행전 30년33)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	행15:36~18:22 살전, 살후, 갈
	6.사도행전 30년34)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	행18:23~19, 고전, 고후
	6.사도행전 30년35)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	행20~26장, 롬
	6.사도행전 30년36)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바울의 편지들	행27~28장, 엡, 빌
	6.사도행전 30년37) 기독론과 사랑의 편지 -바울의 편지들	골 몬
	6.사도행전 30년38)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바울의 편지들	딤후전, 딤후, 딤후
7. 공동서신 9권	3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선한 싸움/No 악한 싸움	히, 약, 벤티전, 벤티후, 유
	7. 공동서신 9권40) 최후 승리의 노래 -최후 승리 확신/No의심	요일, 요이, 요삼, 계

부록6. 통통성경학교 STEP4/ 성경을 통통한 기도 (through the Bible)

통통성경학교 STEP4/ 성경을 통통한 기도 (through the Bible)	
1.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와 묵상 (창24:12~15)	7. 느헤미야의 기도와 묵상(느1:8~9)
2. 모세의 기도와 묵상(출32:11~14)	8. 예수님의 기도와 묵상1(마4:1~4)
3. 한나의 기도와 묵상(삼상1:10~11)	9. 예수님의 기도와 묵상2(마6:9~13)
4. 다윗의 기도와 묵상(시19:7~10)	10. 예수님의 기도와 묵상3(마26:39)
5. 솔로몬의 기도와 묵상(왕상8:49~54)	11. 시므온의 기도와 묵상(눅2:28~32)
6. 예레미야의 기도와 묵상(애1:1)	12. 바울의 기도와 묵상(갈2:19~20)

부록7. 통통성경학교 STEP5 /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Jewish and Family School)

통통성경학교 STEP5 /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Jewish and Family School)
<p>I. 공감과 공부-박사마을 이야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대인의 혁신과 노벨상 2. 유대인은 DNA가 다른가?-노예 생활과 학살 경험
<p>II.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두 사람-모세, 다윗</p> <p><모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출애굽 협상 4. 로스쿨 5. Family School-나라와 민족이야기 <p><다윗></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이새의 Family School-물매와 권력의 공공성 7. 민족분단-신뢰 8. 쿠데타-책사들의 전쟁
<p>III. 고대의 5대 제국과 유대인 이야기</p> <p><앗수르 제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앗수르 제국의 경영 키워드-경제 10. 앗수르 제국의 경제 노예-Family School의 폐쇄 <p><바벨론 제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바벨론 제국의 경영 키워드-교육 12. 바벨론 제국의 왕실 사업 -유대인 탄생 Family School 재개 <p><페르시아 제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키워드-숫자, 경제 14.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 투자-유물반환 15.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세계경제-황금의 제국 <p><헬라제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펠라 제국의 경영 키워드-융합 17. 헬라 제국의 그리스인 투자-알렉산드리아 도시 건설 18.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p><로마 제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 로마 제국의 경영 키워드-관용, 그러나 위선 20. 로마 제국과 유대인-유대교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 21. 로마 대화재 사건 22. 유대인과 보석-기술중시
<p>IV. 코끼리 이야기-1,000개의 작은 그리모가 하나의 큰 그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3. 로마 제국과 중세 1000년 24. 또 다른 나라 이야기, 1789년 미국 대통령제 -로스쿨 25. From Infancy-다시 시작하는 모세 이야기

부록8. 부모에게 실시하는 설문조사

부모에게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부부를 포함하고 있어서 같이 공유하게 되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과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원한다. 어린이들과 통독성경으로 가정에서도 함께 연계되기를 기대한다.

설문1.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언제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응답1; 태중에서부터이다.

응답2; 태교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기이다.

설문2. 시대적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응답1; 예배, 말씀, 기도이다.

응답2; 예배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본을 보여줘야 한다.

설문3. 미디어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을 볼 때 부모로서의 마음은 어떤지요?

응답1; 해는 하지만 답답할 때가 많고 너무 지나치면 때론 화가 나기도 한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기쁘게 부르면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 기도하길 원한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다.

응답2; 예배시간과 교회에서 하는 것이 미디어보다 재미없고 귀찮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안타깝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말씀읽기와 큐티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 지 고민이 된다.

설문4. 학교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응답1;안타깝다.

응답2;내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없어서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설문5.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씀교육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혹시 부족하다면 추천하고 싶은 방법적인 것이 있나요?

응답1;네, 말씀교육은 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른데 마음을 두고 있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응답2;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효과적으로 메세지 전달되길 원한다. 또 복습시간에 퀴즈 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들은 말씀재확인 하길 원한다.

설문6. 부모로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1;

응답2;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필요하다. 말씀 읽기를 매일 꾸준히 하도록 지도해야 겠다.

설문7. 기존의 성경통독 할 때의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통독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응답1;말씀을 읽고 다가오는 부분이나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 그으며 암송 하려고 한다.

응답2;날짜대로 읽어 갔었다. 역사순으로 성경의 흐름 파악할 수 있다.

설문8. 통성경을 통해 쉽게 성경을 통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합니까?

응답1;없다

응답2;매일 읽는 훈련 부족하다. 중간에 한번이라도 빠지면 다음날 읽는 것에 부담이 생긴다.

설문9. 통성경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응답1;그렇다

응답2;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예레미야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차서 이스라엘을 도로 회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포로 귀환 후 성전, 성벽 재건을 통한 영적회복을 향한 지도자와 백성들의 노력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5대제국에 대해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설문10. 1년1독 통성경을 통해 성경통독할 때, 기존의 성경통독과 달라진 방법은 무엇입니까?

응답1; 소리내서 곱씹어서 읽어보려고 노력한다

응답2;

설문11. 통성경을 통해 성경통독할 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응답1;역사순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

응답2;역사순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다. 제사장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해 하였다.

설문12. 통독할 때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아는데 효과적이었습니까?

응답1;네 그렇다.

응답2;.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설문13. 성경통독할 때 성경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어떤 목표를 갖게 하였습니까?

응답1;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발견하려고 한다.

응답2;무작정 읽던 것에서 성경의 맥을 스토리로 이해하면서 읽고자 한다.
그리고 다독을 목표로 한다.

설문14. 성경통독할 때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응답1;구약을 통해 신약의 말씀을 연상케 하게 되었다.

응답2;역사적 배경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중간사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사역을 준비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설문15. 성경통독 할 때 당신의 변화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응답1;전체적인 내용을 그려보려고 한다.

응답2;하루 분량으로 적당하고 이로 인해 1년1독을 할 수 있었다.

설문16. 가정에서 자녀들이 통독할 때 변화된 행동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응답1;아니요.

응답2;성경통독 제목달기 노래를 통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다.

부록9. 어린이들과 통성경한 설문조사

어린이들의 설문조사는 응답1, 2, 3로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기록한다. 어린이들의 반응을 그대로 한 것이다. 때문에 필자도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잘 전달해야겠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이들이 어렵지만 그들의 고백처럼 나중에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자녀에게 힘들고 짜증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날을 기억할 것이다.

질문1. 성경통독 할 때의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통독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나요?

응답1;무응답

응답2;성격책에만 둬

응답3;목표에

질문2. 성경통독을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응답1;.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했다.

응답2;.제발 읽으라고 그럼.

응답3; 큰 목소리로

질문3. 부모님께서 성경통독하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응답1;재미없고 지루하다.

응답2;솔직히 알아서 할거라 좀 짜증나긴 했음.

응답3;짜증난 마음.

질문4. 광명서현교회에서 실시하는 통독성경 읽기표로 통독을 하고 있나요?

응답1;네.

응답2;ㅇㅇ

응답3;그렇다.

질문5. 혹시 예전에 성경읽은 방법하고 통독성경읽기표로 읽는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응답1;순서가 다르다.

응답2;별다른 차이 없음.

응답3;정해진 것.

질문6. 수요일에 실시하는 통성경공부가 이해가 되나요?

응답1;아니요.

응답2;이해가 전혀 안됨. 너무 재미없음 좀 재밌게 해야지 이해될 듯.

응답3;모름.

질문7. 수요일 성경공부를 통해 자신에게 변화된 행동은 무엇인가요?

응답1;.모르겠다.

응답2;별다른 차이 없음.

응답3;모름.

질문8. 집에서 성경 통독을 매일매일 어느정도로 하고있나요?

응답1;.한과씩 한다.

응답2;이틀거??? 읽는 중.

응답3;적게.

질문9. 앞으로도 성경통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나요?

응답1;무응답

응답2;.매일함

응답3;내가 원하는 만큼

질문10. 부모의 성경읽기 강요가 지금은 힘이 들지만 앞으로 본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것 같나요?

응답1;똑같이 하면 된다.

응답2;재밌게죠. 성경에는 좀 많이 알 듯.

응답3;말씀이해가 더 쉬워 질것 같다.

질문11. 마지막으로 신앙을 계승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응답1;커서 잘 될 것이다.

응답2;모름

응답3;....

질문12. 본인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싶나요?

응답1;무응답

응답2;나도 모름

응답3; 이해하기 쉽게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Clark, Robert E., Joanne Brubaker, Roy B. Zuck, and Zuck Brubaker, eds.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Chicago: MoodyPress, 1986.

Foster, Charles R. *Education Congregation: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1994.

번역서적

Cochran, Gregory, Henry Harpending. *1만년의 폭발*. 김명주 역, 서울: 글항아리, 2014.

한국어서적

글렌 도만.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 서울: 민지사, 2006.

강동협, *자녀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라*. 서울: 규장, 2009.

김세윤,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 서울: 두란노, 2015.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다산글방, 2002.

김영진.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 서울: 웅진닷컴, 2003.

경한수. *임상목회* 서울: 도서출판 세풍, 1994.

노마 디어링. *필링 터치*. 서울: 서로사랑, 2006.

데이빗 A. 씨맨즈. *상한 감정의 치유*. 서울: 두란노, 2007.

데이빗 A. 스토다드. *마음으로 하는 멘토링*.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씨앗, 2009.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대럴 L. 구더. *증인으로 부르심*. 허성식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롤프 가복.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서울: 두란노, 1999.

- 류태영. *천재를 만드는 유태인의 가정교육법*. 서울: 국민일보, 2007.
- 라원기.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 마이클 프로스트. *성육신적 교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맥스 루케이도. *3:16: 내 생애 최고의 축복*. 서울: 두란노, 2008.
- 박용후. *관점을 디자인하라*. 서울: 프롬북스, 2013.
- 신상언. *직면*. 서울: 낮은올타리, 2009.
- 설동주. *네 자녀 네가 가르쳐라*. 과천: 웨마학당연구원, 2014.
- 설동주. *웨마학당 세미나*. 과천: 웨마학당연구원, 2017.
- 신동준. *최후의 승자가 되라*. 서울: 미다스북, 2017.
- 신정하. *하나님의 학교*. 서울: 쌤앤 파커스, 2011.
- 육성호. *아버지 육한흠*.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 여운학.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서울: 규장, 2008.
- 웨이슈밍. *하버드 새벽 4시반*. 서울: 라이메이커, 2015.
- 오스힐먼. *하나님의 타이밍*.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 정규남. *구약신학의 맥*. 서울: 두란노서원, 2001.
- 제럴드 라우. *한 눈에 보는 기원 논쟁*.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6.
- 조병호. *렛츠 통 구약 천년*. 서울: 통독원, 2011.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성경한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신문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0.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나라*.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통바이블*. 서울: 통독원,
- 조병호. *통박사가 말하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서울: 통독원, 2010.
-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365일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신구약 중간사*.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어린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청소년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전체를 보면 지름길이 보인다*. 서울: 통독원, 2013.
- 존 H. 윌튼.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 강성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진 카피. *기적의 두뇌*. 서울: 학원사, 2004.
- 최에스더. *성경먹이는 엄마*. 서울: 규장, 2007.
- 최에스더.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 서울: 규장, 2007.
- 피트 윌슨. *다시 일어서는 힘 플랜B*. 서울: 두란노서원, 2011.
- 토미 테니. *하나님의 관점*. 서울: 토기장이, 2007.
- 폴 코판. *카페에서 하나님께 묻다*. 홍병룡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현용수.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서울: 아름다운 세상, 2003.

논문, 잡지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읽기(1)>, 국민일보, 2012.9.3.

박연훈. <교회학교의 위기> <http://blog.daum.net/kcgi5291/6>

강경태. "성경 통독이 성도의 설교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무학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2016).

김광중.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할 때 나타나

는 변화 -통하는 교회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2016).

김한성. "통(通)성경 방법을 통한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와

1년 10번 성경듣기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2016).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Incheon, Oh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May.01, 1971

Parent`s Names: MyungGi, Oh and GwiNam,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DongShin High School 50, Dongmun-daero, Buk-gu, , Korea, Gwangju, South Korea.	Diploma	Feb. 7, 1991
Collegiate: GwangShin University and Theology Seminary 36, Yangsantaekjiso-ro, Buk-gu, , Gwangju, South Korea	Th.B	Feb. 20, 1998
Graduate: GwangShin University and Theology Seminary 36, Yangsantaekjiso-ro, Buk-gu, , Gwangju, South Korea	M.div	Feb. 21, 200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Incheon Oh

Name typed

May 4, 2018

Date